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獨軍和蘭國境集結
카、스兩海峽防備도强化
要塞構築勞働者三千名派送

【倫敦十一日發同盟】十一日암스텔담으로부터 倫敦에 達한情報에 依하면 獨逸軍은 和蘭國境方面數個所에 大部隊를集結하여 同國境地方은 매우 緊張되어잇고 和蘭은 獨逸軍侵入에 備하여 이미 萬全의準備를 完了하엿다고하며

【스톡홀름十一日發同盟】十一日 當地新聞이報道하는 伯林電에依하면 獨逸은카떼갓트、스카게라크兩海峽防備의 目的으로 沿岸要塞構築을 爲하여 벌써 三千名의勞働者를 派送하엿다고한다

三部隊에感狀

【東京電話同盟】東北方面作戰에參加한 西川支隊、西村部隊、部隊、久納部隊에 對하여는 嘗番 軍司令官으로부터 感狀이授與되엇는데 右感狀은 十日各各上部에傳達되엿다고 十二日午後四時大本營陸軍部로부터發表되엇다

獨側戰況發表

【伯林十一日發同盟】獨軍司令部 十一日發表

一、나르빅近海베스트、피욜드에서의 十日부터十一日까지의 夜間戰鬪에서 獨軍은적어도 敵驅逐艦二隻을 擊沈하엿다 나르빅近海에서 擊沈된驅逐艦은이것으로 六隻에達하엿다

一、獨空軍은 十一日諾威各方面에서 獨陸軍增援部隊의 進擊을掩護한外 丁抹、諾威諸海岸에偵察哨戒飛行을하엿다

一、諾威各地獨軍占領地區는 이미高射砲隊가各部署에就하엿다

一、英空軍은 十一日트론드하임을 襲擊하여왓스나 卽時擊退되엇다

【伯林十一日發同盟】DNB通信社는 十一日 諾威戰局은 徹底的으로 獨逸의 制壓下에 進展中이라고 다음가지 各方面의情報를 報道하고잇다

一、至今諾威海岸의 砲臺는그大部分이 獨軍의 手中에 歸하고언제라도 敵의襲擊에 砲火를퍼붓수잇는 準備를 完了하엿다 그런데 오슬로·베르겐·스타반게르에는 十一日獨逸陸軍의 强力部隊가續續 上陸하엿다 一方오슬로로부터의 情報에 依하면 트론드하임에서의 諾威軍 防空砲隊는 오슬로政府의 命令에따라 十一日곳 英國空軍의 擊退에參加하엿다 英國空軍은 이런諾威防空砲隊의 反擊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몰으고 트론드하임에空襲하여왓스나 意外의 對空集中砲火를밧고 數分間만에 退却하엿다 更히트론드하임에는 十一日獨逸輸送船數隻은 無事到着하여 裝甲車彈藥等 多數를揚陸시켯다 一方增援部隊는 南部諾威로부터 鐵道를利用하여 到着하엿다 그리고 獨逸軍은 九日부터 十日에亘한 夜中 에로베룸으로進擊하엿는데 이戰鬪에서 獨逸軍은 그數에잇서 훨신獨逸을 凌駕하는 諾威軍을 悠悠히 制壓하여 諾威軍數個大隊를 約八十名의士官과함께 武裝을解除하고 小銃五百 砲五門을 鹵獲하엿다

一、十日夕刻獨逸空軍偵察部隊는 쉐트랜드島南西海上을 哨戒中 一群의 軍艦이同海面을 南西로向하여 航行中인것을 認定하엿는데 伯林에達한 各方面의 情報를綜合하면 即右軍艦은 베르겐附近에서 獨空軍의 攻擊을밧고 大損을바든結果戰線을放棄하고 基地로歸還하지안흘수업게된 英海軍의 戰艦及巡洋艦이라고 推定된다

英獨의北歐戰況
英海相下院서報告演說

【倫敦十一日發同盟】처칠海相은 十一日下院에서『英國海軍의 行動』에關한 戰況報告를 하엿는데 演說中注目할만한 重要點은다음과갓다

一、我海軍은 諾威에서 아직一港도 奪回치못하엿고 또英國驅逐艦그로우웜號(一、三三五噸)이 擊沈되엇다

一、獨逸空軍은 六十機로써 十日스카파프로 軍港을 襲擊하여왓스나我方에는 損害는업고 도리어敵機六機를擊墜시켯다

一、主力艦로드네號(三三、九〇〇噸)는 獨逸空軍의 攻擊에依하여重爆彈을 바닷스나 沈沒치안헛다

一、英海軍은北海의 丁抹領페레 群島를 占據中인데同島는丁抹이獨逸의侵略으로부터 開放되는날에는 이를 返還할意嚮이다

一、英國主力艦리나운號(三二、〇〇〇噸)는 十一日朝나르빅近海에서 獨逸巡洋戰艦샤른홀스트號(二六、〇〇〇噸)及 甲級巡洋艦과 一萬八千碼를 相距하여 砲火를 相交하여 샤른홀스트號의 前檣을命中시켜 甚大한損害를 주엇다 그리고相互砲火를 相交하여 샤른홀스트號부터는 黑煙이濛濛하게 올랏는데 同艦은煙幕을치고 全速力으로 逃走하엿다

一、아이스랜드의 地位에對하여는 今後 다시檢討를 할必要가 잇는데 同島에獨軍이 上陸하는것은 斷乎阻止할생각이다

一、英國軍의 베르겐과울드의 獨海軍攻擊에잇서서는獨輕巡洋艦二隻中 一隻을擊沈시켯다 모렌드·피욜드에서 海空軍이協力하여 獨巡洋艦을 攻擊하엿는데 그後空軍偵察에 依하면 海面上에 燃料油가흐르고잇는것을發見하엿다 그리고空軍의 空雷投射機는 트론드하임港에서도 獨逸艦船을 襲擊하여獨驅逐艦一隻에 爆彈을命中시켯다

一、今番 海戰에잇서 獨逸軍의損害를綜合하면 巡洋艦은四隻에達하여 戰前에獨逸巡洋艦數의 半數이다 이外에 英國海軍은 지난七日多數의 獨逸驅逐艦及 潛水艦을 擊沈하엿다 即獨逸海軍은必要한 巡洋艦數에잇서 完全히 半身不隨의狀態에 빠진것으로 보인다

一、그리고 히總統이 今番의諾威를 侵略한것은 一八〇八年 나포레온이 西班牙에 進駐한것과 同樣重大한政治的 誤算이라고 斷定하지안흘수업다

天皇陛下
大宮御所行幸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十二日 甘露寺侍從次長御陪乘 松平宮相 他側近者를 御從하옵시고 略式自動車御料로 午前十一時三十分 宮城御出門 오래간만에 大宮御所에 行幸을 하옵시와 皇太后陛下께御對面 御人事를 하옵신後 御團欒하옵시고 午後三時 御所御出門 天機御麗하옵시게 宮城으로 還御하옵섯다

墨西哥經濟使節團
團長謁見

【東京電話同盟】昨十一日入京한 墨西哥國經濟使節團團長에르네스토·이다르고氏는 프리모·뷔리아및젤氏와 同伴하여 十二日午前十時 三十分 參內、鳳凰間에서天皇陛下께謁見、訪日御人事를言上、敬意를 奉表하고 光榮에恐懼하여宮中을退下하엿다

醍醐侍從歸京

【門司電話同盟】臺灣、南支、北支에活躍하는 海軍部隊將兵에게 聖旨와 令旨를傳達한 侍從武官 侯爵醍醐忠重海軍大佐는 十二日朝大連으로부터 門司入港의 日滿連絡船鴨綠丸으로 門司上陸午前九時二十五分下關發急行으로 歸京하엿다

海軍協會總裁에
伏見宮殿下奉戴
今日水交社서奉戴式

【東京電話同盟】創立以來 二十有餘年 海軍精神 海軍思想의普及에 努力하여온 海軍協會는現在二十六萬의 會員을擁하고잇는데 紀元二千六百年을 마지하여 다시 飛躍的發展을期하고 伏見宮博恭王殿下를 總裁에 奉戴하기로되어 十三日 東京水交社에서盛大한 總裁奉戴式을 擧行하엿다 이날 午前十時三十分參列者 約三百餘名 奉迎裡에 伏見宮殿下께서는 水交社式場에 御臨場하사 有吉忠一會長의 開會式辭로 開會 殿下께서는 優渥하오신令旨를 賜하섯다 이에奉對한會長의奉答 祝辭等이 잇슨後奉戴式을 마치엇는데 式後總裁宮殿下께서는 祝宴場에 行次하사一同과가치 祝杯를들으시고 午後一時五分 全員奉送裡에 御歸還하옵섯다

有吉會長謹話

海軍協會는 今日水交社에서伏見宮博恭王殿下의 奉戴式을擧行하엿다 恒悚하옵게도 殿下께서는 親히 令旨를 賜하사 我等會員의 向할바를 下示하신것은 實로 恐懼感激에不堪하는바이다 向後會員一同은 協心戮力하여 本會의使命에向하여 精進하여 써 殿下의 御趣旨에 奉副하도록 굿게決意하는바이다

南總督祝辭에
陳部長感謝狀

지난三月二十五日 京城을出發하여 南京에飛行機로向한 候補飛行士의 支那新政府成立祝賀飛行機『鵝林號』에付托하여 南總督으로부터 新政府要路에對하여 祝辭를보내엇던바 今番新政府內政部長陳群氏로부터 南總督에게 叮重한 感謝의回信이왓다 다음과갓다

陳群內政部長으로부터의感謝文

謹啓 寒暖이不順한이때 閣下의 御健在함을 拜承하니 大賀하다

過日 三月三十日은 閣下를비롯하여 日本朝野의 絶大한 御援助下에 南京에 再次國民政府의 改組還都를 보게된것은 小官의 가장欣快하게생각하는바로 그때에는 祝賀飛行機를派遣하고 또賀翰을 惠送하시니 感謝에 不堪하는바이다

現在와가튼 重大時局에 際會하여 小官이 意外에 國民政府內政部長의 要職에 就任한것은 日支兩國을爲하여 責任의重且大함을痛感하는바이다 多幸히 閣下를비롯하여 日本朝野諸賢의 御援助과 御指導를바다 任務를遂行함을 어드면 東亞에넘치는 光榮으로 생각하는바이다

끗흐로 閣下의御健康을바라는同時에 이것으로 答禮하는바이다 敬白

伊太利서新動員令
따늅河獨逸支配에
伊首相은反對意嚮
國際警察組織을提案?

【紐育十一日同盟至急報】十一日의 UP羅馬電에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今後 四十八時間以內에 新動員令에 署名하기로되엇다고한다 動員令은 歐洲戰局發展의 可能性에 關한것으로 從來의 動員令에 附加하여 새로 一九〇八年生으로부터 一九四年生의 五크라스(級)의 壯丁을 召集하려는것이라한다

【紐育十一日發同盟】獨逸政府는 빨칸方面으로부터의 物資補給路確保를爲하여 匈牙利、유고슬라비아、勃牙利 各國政府에對하여 도나우河航行의 完全한支配權及警察權의移讓을 要求하여오다고傳하는데 十一日부다페스트로부터의情報에依하면 匈牙利政府는獨逸로부터의 右要求를밧고 卽時무伊太利首相의 意向을 質問하엿던바 무首相은 빨칸의現狀維持를 破壞할과가튼 如何한變更에도 反對한다는意向을 表明하엿다고한다 이리하여 匈牙利政府는 獨逸政府에對하여 도나우流域諸國及伊太利를加한 도나우河國際警察의組織을 提示할것이 아닌가보인다

羅國도對戰準備

【부카레스트十一日發同盟】빨칸의 情勢逼迫과 同時에 蘇聯의 態度는 注目되던바 十一日부카레스트에達한 情報에依하면 蘇聯은 最近드디어 大軍을오뎃사로 集結하고잇다고 傳하여 緊張感을 一層深刻하게하고잇다 이들大軍은 모두芬蘭戰爭에 出動한 精兵이라고하는데 이情勢에 對處하여 羅國政府는 十一日動令으로써 全國의 工場에 對하여動員、萬一의境遇에 對備하여 적어도 十五日間의 物資를 貯藏하도록 命令을 發하엿다

베르겐占據의
英國企圖未然防止

【伯林十一日發同盟】獨逸政府는 諾威作戰을 敢行한것은 英軍이 諾威進入을 企圖하고잇는 確證을어덧스므로 그러한것이라고 發表하고잇는데 十一日午後 다음가치 事實을發表하엿다

英國은 諾威救援을 名目으로 베르겐其他地點의 占據를 目的으로하고 武器彈藥을 滿載한五隻의 輸送船隊를 베르겐에派遣하엿다 그런데 獨空軍은 英軍의上陸十時間前에 이를探知하고 此際 企圖를未然에防止한것이다 그리고 右英船五隻의 搭載品은 全部獨軍의手中에들엇다

英、페레群島占領

【倫敦十一日發同盟】처칠海相은 十一日下院에서의 演說에서 英國艦隊는 諾威와아이슬랜드와의 中間에잇는 北大西洋上의 丁抹領페레群島를 占領하엿다고 發表하엿다

北歐在留米人撤退

【華盛頓十一日發同盟】米國國務省은 十一日丁抹諾威兩國在留米人을 撤去시키기로 決定하고 이들 米人은 獨經由、伊太利의 제노아로부터 乘船、米國에 向할豫定이다 이撤去에 關하여 獨、伊兩國政府의 協力을어드려고 各駐在外交機關에 訓令을 發하엿다 그리고 現在兩方面在留의 米人數는 다음과갓다

◀諾威 一、〇六七
◀瑞典 一、七五二
◀丁抹 五五二

英海相重要演說

【倫敦十一日發同盟】처칠海相은 十一日午後下院에서 最近의 스칸디나비아方面의 戰況報告에對하여 다음가튼 重要發表를하엿다

過去數週間에 亘한 平靜은 지난八日獨軍이 突然不法하게도諾威、丁抹兩國에 侵入하엿슴에依하여 破壞되엇다 그리고 이不法行爲는 獨逸이 以前부터 計畫하고잇던것으로 三月下旬에를자 드디어 그準備가 實行에까지 옴아간것이다 我等은 多數의 獨船舶이 數個月에 亘하여 輸送船으로 準備되어 또多數의 小船舶이北獨沿岸의 港灣及에르베河口에 集結하고잇다는 報告를接受하엿는데 누구나이船舶이 무엇에 所用되는것인지를알수업섯다 和蘭、丁抹、諾威、瑞典諸國은 모두獨의 非人道的攻擊의 犧牲이될 可能性이잇다 獨逸이 强者보다도 弱者를 攻擊한다는 明瞭한意圖를 가진以上 近接하는 全小國은 極度의緊張狀態에 빠지게될것이다 하기는 獨逸과 和解하여 어에最大援助를한 中立國조차 獨逸으로부터 突然한攻擊을밧지안흘가하고 戰戰兢兢한 狀態에잇다 就中丁抹의 危機가 가장切迫한것가치보인다 이는獨逸의隣國中 丁抹이가장 獨에가깝고또는 가장弱한 나라이라는 理由만이 아니다 實로同國이最近獨逸과의사이에 不可侵協定을 締結하엿다는 事實이 잇섯기때문이다 (英美)丁抹은 英獨과의 사이에 貿易關係도 기퍼이亦是當然히 危險한 地位에잇게되엇다 諾威西海岸은獨逸이 英佛의 封鎖線을 突破하고 一般商船은 勿論軍艦까지도 自由로 通航할수잇는通路를 주고잇섯다 이國際法에依하여 擁護된水路는 從來英佛側에對하여는 最大의弱點이엇던것이다 이에反하여 獨에게는 聯合軍側의 封鎖線을突破하는데 가장形便이조핫던것이다 그리고 獨逸潛水艦도 이水域을 盛히利用하고잇섯다 英國海軍은 獨逸及中立國의 船舶이 戰時禁制品을 搭載하고 航行하는것을 監視하고잇섯스나 國際法과抵觸함을避하기爲하여 이것을 그냥 둔것이다 그러데獨逸은 英海軍의이가튼愼重한態度를 輕視하게된것이다

瑞典通過要求說
獨逸政府는否定

【伯林十一日發同盟】當地第三國側에서는 諾威沿岸에서의 英獨海戰이 漸次激烈함을따라 獨逸이 瑞典政府에 壓力을加하여瑞典을通過하여 陸上軍隊及食糧을輸送할必要가잇다고보아 獨逸이이미瑞典에對하여 軍隊通過를要求하엿다는說이 잇는데 獨逸官邊은 十一日이는 全然事實無根이라고發表하엿다

八面鋒

英海相、英軍의 諾威諸港奪回는 虛報라고 言明。

◇

正直은 하지만 北歐戰勢는 大體로 不利한 모양이니 是將奈何오。

◇

蘇聯軍 諾威進擊 오뎃사에 兵力輸送 北歐엔暴雨 東南엔 暗雲低迷。

◇

스타린의 對獨제스츄어? 아니獨蘇의 完全提携?

◇

米伊의 參戰은 어느날? 世界의改造는 果然 어느날일꼬。

◇

獨、도나우河 輸送路確保次 武力을 行使하리라고。

◇

빨칸에의 飛火도 刻一刻으로切迫。

로드네號被擊
沈沒은免햇다

【倫敦十一日發同盟】처칠海相은 十一日 下院演說에서 英海軍의 主力艦로드네號(三三、九〇〇噸)가九日獨空軍의 爆擊을바더大型爆彈一個가 이에命中하엿는데 沈沒은免하엿다고 發表하엿다

上海共同租界參事
依然英五、日米各二名比率
參事會員選擧開票結果

【上海十二日發同盟】上海共同租界工部局 今年度市參事會員選擧開票는 十二日午前三時半 終了하엿는데 如左히 從來와 英五、米二、日二의 比率는 依然히 깨트리지안코 五名의候補者를 보내어 租界行政에 制壓을어뚤려고하던 我方의努力도 드디어 敗退를不得已하게되엿다

一位 아르만(米) 八、〇〇〇票
二位 가넨(米) 七、九九八票
三位 케스윅크(英) 七、八八三票
四位 하레이(英) 七、八六九票
五位 파우엘(英) 七、八六〇票
六位 로데릭크맥도날드(英) 七、八三一票
七位 밋첼(英) 七、八二〇票
八位 塙雄太郎(日) 五、二一一票
九位 田 誠(日) 五、二〇五票
次點 岡本一策(日) 五、二〇三票
同 黑田慶太郎(日) 五、一八八票
同 岡本乙一(日) 五、一八七票
同 로날드맥도날드(英) 三二三五票
有效票數 一、三〇九八票
無效票數 九八票

未經驗邦人有權者
多數가敗因

【上海十二日發同盟】上海共同租界의 明朗化를 期하여約十萬의 在留邦人一致協力下에英米를 相對로 十日 十一日의 兩日에施行된 市參事會員選擧의結果 別項과 가치 我方의 候補者五名中 三名은 落選 二名을 確保하여 現狀維持로 되엇다 今次選擧의敗因은 邦人有權者中 未經驗者가 多數로 選擧權을 行使할수업는者가 多數인데 對하여 英國側은 土地委託制度를 利用하여 名義變更을 行하여 各有權者를 增加케하고 또는 工部局官吏와 通謀하여 어떠한種類의 手段에依하여 票數增加를圖謀하는等 不當行爲의 [illegible]然한바가 잇서서 我方은 不得已 今年度選擧는 從前대로 二名의 椅子를 確保하엿는데 또 最近 在上海邦人의 增加率로써 보면 明年度改選期까지에는 邦人有權者가 絶對多數를 어들것은 必至이므로 我方은 [illegible]의 눈물을 먹음고 捲土重來하여明年度의 改選에 萬全을 期하기로되엇다

海軍機桂林空襲

【〇〇基地十一日發同盟】柳端中佐를 總指揮官으로하는 鷲田、中村各海軍航空部隊 〇〇機는去四、五兩日에걸처 廣西省 平馬(柳州)의空爆에繼續하여 十一日午後不安定한 天候를 무릅쓰고 廣西의 殘存敵空軍의 重要據點인桂林、關東飛行場의 軍事施設과 山積한軍需品에 巨彈을퍼부어 敢然히滑翔하여고시 山腹에 巧妙히 숨어잇는 大型一機에 有效한 直擊彈을퍼부어 命中、이를粉碎하여 多大한 戰果를거두고 全機無事히基地로歸還하엿다

고다公來朝

【桑港十一日發同盟】지난 一月日本經由로 渡米한 고다公은來訪 [illegible]하고잇섯는데 또다시 紀元二千六百年奉祝에 際하여 히總統의 特使로 正式으로 日本을訪問하기로되어 十一日桑港出帆의 龍田丸으로 日本에 向하여出發하엿다

第二日의興亞院會議

【東京電話同盟】興亞院連絡部長官會議第二日은 十二日午前十時부터 興亞院에서開催 現地側으로부터 蒙疆、華北、津田華中、竹下廈門、水戶廈門 各連絡部長官과 柴田靑島出張所長以下 各關係官 中央으로부터 柳川興亞院總務長官 鈴木政務部長外各部課長 各關係官出席 現地에서의 政治經濟文化의實情과 新政府成立에 卽應하는 今後의對策等에關하여 協議懇談을하고 正午一日休憩續開하여 午後一時부터 會議를續行하고 同三時散會하엿다

墨西哥經濟使節團來朝

【橫濱電話同盟】日本、멕시코親善과 通商關係增進의 重大使命을띈 멕시코經濟使節團長에르네스트이달고夫妻以下一行十六名은十一日午前九時三十分橫濱着의 郵船龍田丸으로 來朝하엿다 그리고 同船으로 邦人二世를 中心으로하는 觀光團二百六十名도來朝하엿다

訪伊使節團
神戶港을解纜

【神戶電話同盟】歐洲의戰雲이더욱濃厚하여진이때 友邦伊太利와 굿은握手를하여 兩國의 親善과經濟關係의 密接化를圖謀하려는 文化使節佐藤尙武 小林一三兩代表一行을태운 郵船歐洲航路榛名丸(一〇、四二〇噸)은 十日午後三時 代表等의使命完遂를 希念하는 國民의歡聲을박고 出航하엿는데 船腹의『日丸』도이날은一層아름답게神戶港을解纜하여一路歐洲로向發하엿다 이날團長佐藤代表는 宿舍인京都미야코호텔을 出發하여 桃山御陵을 參拜한後 上京都驛發午前十時二十分 省電으로來神 小林使節과함께 도아호텔이서의 日本伊太利輸出入組合主催의 歡送宴에出席하여兩代表以下顧問인日本伊太利輸出組合理事長淺間龍藏 大日本紡績相談役 今村奇男 富山製纖常務取締役 高崎達之助諸氏 隨員인岸總領事 井上外務 原田大藏 新井商工 內田企畫院 本野內閣情報部 各書記官 五百旗頭 神戶 商大敎授 司務官理事官翻譯部員 秘書等二十名의 首途를祝하고 一行은乘船遊步甲板에서 佐藤團長의 人事가잇고 祝盃가잇슨後 片岡安代表만은 門司로부터 同船에搭乘하기로되엇다 그리고 訪伊經濟使節一行外에 同船한 養蠶家山崎功氏 日獨交換學生 吉井良三氏等이 歐洲에向한外에 訪伊使節과함께 高崎顧問으로부터 伊太利政府에 보내는 鶴、龜、鯉、吉野杉、高野槇等 산動植物 阪神大阪市長으로부터 羅馬市長 프렛티氏에보내는 丹頂鶴夫婦가 人目을끌엇다

人事·集會

◀兒島李王職次官令孃成子(二歲) 十二日午前二時死去 告別式은明後十四日午後三時부터四時까지自宅에서神式으로執行

◀濱新璵氏(滿航空事業社長) 南京新中央政府成立慶祝飛行 無事完了歸還人事次 十二日本社來訪

三毒잇스면 腦溢血이나·狂人

머리가흐릿해서 根氣薄弱하고
현기증、耳鳴、肩臂痛과
뽀로지로呻苦安眠안되는人
먼저血液에注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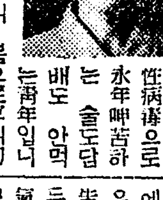
支那의孔子님은『몸을害치는것은色에잇다』고警戒하고 日本의貝原先生은『酒色의亂雜은 萬病의因』이라고 가르키고 東西의醫學者들은통트러煙草의 毒을說破하고잇슴니다。此等三大毒을비롯하여 多年間蓄積된 여러가지毒이 相付相結하여古方醫學의所謂瘀血이되여서 體內에퍼진다。이러한體質인분을 瘀血쟁이라고합니다。이瘀血이뭉치면 血液은濁하고 血行을妨害하므로俗稱血의病、頭의病이頻發하고 그것이더치면 高血壓으로腦溢血이나、神經障碍로 精神病이나그러치안흐면 心臟이弱해서心臟痲痺나腎臟이衰해서萎縮腎이나 어느것일지라도 一命에關하는重患難症을 免하지못하는것입니다 그러나그러케되기까지에는前記標題와가튼여러가지 自覺症狀이나타나므로 그러한前兆時代에瘀血을업새면前途의不安도完全히一掃됩니다。

病毒酒毒의瘀血을업새면 病苦도잇고든든케된다。

前記重患難症의 原因이 瘀血인以上 瘀血을업새서 體質을뜨더고치는것이야말로 根本的인病原療法입니다 그런데 世間에서는 이病理를 究明치못하고 머리가 무겁다고해서 鎭痛藥 잠못잔다고해서 催眠劑、血壓이노프다고해서는 無理한下降法을 하는等그당장의눈가림의 姑息的인療法을써서 도로혀 病勢를惡化케하는분들이 잇는것은 참으로遺憾된일입니다。瘀血을업새라－ 瘀血을업새면 지금까지의 硬化햇든 血管이 부드럽게 되여서 伸縮이 自由로워서 自然的으로血壓도 네리고 腦溢血의 念慮도 업서지게되고 지금까지 不絶히 刺戟을맛고잇슨 腦神經도 沈着해지고 精神狀態도 順利케되며 바보나미치광이가될 不安도업서집니다 그러면어떠케해서瘀血을업새느냐 當研究所는 以上의病理를根據로하고 幾百年의 貴重한經驗에基한古方醫學과 自然科學의 發達에依한 現代醫學의 長所와 古今東西에自한藥物學等에對하여 徹底的인檢討를하고 更히 多年의實地驗證도加하여 가장確信잇는瘀血新療法을發見햇슴니다。呻苦하시는분은꼭 한번 實驗해서 얼마나效果的인가를親히體得하십시요。

머리는흐릿하고뽀로지로呻苦
永年의遺傳性病毒이快癒

東京·向島(職工) 山川幸一



나는遺傳性病毒으로 永年呻苦하는 술도담배도 안먹는靑年입니다、二三年前부터 봄으로부터初秋에걸처서발에여드롬과가튼 紫色의뽀로지가나므로 지금까지여러가지 加療를햇스나 어느거나 泄瀉를하던지腹痛을이르켜서 몸에맛지안어困難을밧고잇섯슴니다 우연히新聞에서 フルチ錠의 廣告를拜見하고 곳買得하여服用햇든바 차칙머리가明快해지고 根氣도恢復해서 밤에잠도잘자게되므로 기뻐서繼續햇더니 뽀로지도차칙減해지기始作하고 몸도대단히 便하게되엿습니다。이것도 フルチ錠의 德澤입니다

排毒과順血에
フルチ錠

主効: 梅毒 胎毒 脊髓癆 血壓亢進症 動脈硬化症 中風 半身不隨症 甲狀腺腫 腺病 貧血 喘息 리우마치스 神經痛 腦神經衰弱 히스테리 頭痛 常習便秘

定價 十三日分 [illegible] 二十二日分 [illegible] 五十日分 [illegible] 家庭用 [illegible]
(全國有名藥店에有함)

古醫學에서再檢討 (四六判美册子)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시면送呈

◆이런症狀인분은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痛、手足麻痺잇는분 (中風、神經痛)
▽動悸、숨차고、盜汗、冷汗으로고생하는분 (心悸亢進症)
▽便秘하고뽀로지로고생하며잠못자는분 (梅毒、神經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一ノ二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日本ソース界の草分け
イカリソース
普通ソース量の五分の1で充分

借家法實施압두고 家屋明渡訴訟輻輳
最近京城法院에每日十件內外、今月에들어尤甚
可驚할家賃引上의前提手段

지금의 서울장안사람을 수용하기만도 이미채니 모자란다는 심각한 주택난으로 당국에서는 『머리둘곳업는사람』들을 위하여 주택을 다량으로 건설토록 힘쓰는한편 머지안어 차가법(借家法)을 조선에서도 실시하기로 되어 일반이 서욱히 안심하려는이때 집세노이하는사람들은 차가법 실시전에 현재의 조건나쁜 세입든 사람을 내어 쫓으려는 통에서인가 최근 경성지방법원에는 연일 가옥명도(家屋明渡)등의 소장이몰려들어와 계원을 혼란케하고잇다 집세에 대해서는 가임지대통제령(家賃地代統制令)에 의하야 소화십삼년이월날일 현재의가격이상으로는 올리지못하도록정지되어잇는데다가 오는 유월부터는 집주인에게는 려저안케번잡스러운 차가법이 실시되면여러가지점으로 불편을 느끼게 될것을 미리 짐작한 탓인지차가법실시의 보도가 전한 수일래로 매일가치 오, 륙건 내지 이십건의 가옥명도신청소송이몰어온다 이제 금년일월부터 사월십일현재까지 동법원민사부에 들어온 가옥명도 건물(建物)명도 토지명도등소송은 무려 일백육십이건에 달한다 그중에는 집주인안사람으로써 이십년 혹은십년식의 셋집든사람을 하루 을섭어서 『집을내라』고 호령한 경향이잇다 이를차변동기에 비하면 약이배에달한다고 법원당무자는 말하는데 특히 사월이후가 만타는것이다 [illegible]분잡했다

引上된家賃地代도 無許可면返戻命令
今後로經濟警察積極活動

땅세와집세는 작년시월 이십칠일 지대가임(地代家賃)통제령이시행되며 그다음달인 십일월분부터는 소화십삼년 십이월십일현재 이상은 밧지못하게되엇스나 그동안에시 올린것이 적지안는데 경기도경찰부 경제경찰과에서 취급한 이통제령위반을보면
▲소화십삼년 십이월삼십일현재의 임금보다올린것
▲집주인이갈리면서 세금을올린것
▲빌리는사람이 갈릴때에 집주인이세를 올리는것
▲『아파ー트』가튼데서 난방장치를하고 그때문에세를 올려서 소위『조건의변경』을하는것

등의경우인데 이가튼사건은 전부통제령위반으로 초과금액을세든사람에게 돌려보내게한후 유시(諭示)처분을 하엿다 또한현재진행중의 사건이삼건은 취조에따라서 엄중하게 될모양이다 이가치 지대와집세는 취체를밧고잇기때문에 표면에는 겨우가파히마업안으나 사실은 이면에 위반자가 만흘모양이다 또한지대가임등 통제의시행은 소화십사년 십일월분부터 이므로 소화십사년 시월까지에 초과금액을이미바든것만은 그대로두되십일월분부터는 일제히 소화십삼년 십이월현재로 도라가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다시 가일층통제령을 엄격히실시케 된것은 상당히효과를 어들수잇스리라고 기대되고잇다

不良飮食店 一齊整理計畫

[黃川] 황해도흥천경찰서관내에는 현재경찰서장으로부터 음식점영업허가를마터가진자중에서 경찰당국의지시에 위반행동을취하고잇는자와 수면상태에잇는자와 설비가불완전한업자등을 근근일제히대정리를단행하고 경찰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규정을하여 제반시설을완비한 업자만을 존속케할계획이라하며 무허가음식점도 동시에일제히철저한 취체를할방침이라고한다

撞球料金引上 本町署管內 組合이陳情

『삘리아ー드』요금이 또 오를려고 꿈틀거린다 ─ 십이일 본정경찰서관내의 당구장(撞球場)조합에서는 현재 한번에팔전내지십전하던 요금을 구전내지십일전으로 올려달라고 진정하여 왓는데 그이유로는 금번 세제개정전까지는 입장세 일백분의[illegible]로 오이던것이 금번일백분의[illegible]로 올랏스니 요금을 좀더올려달라는것이다 그러나 경찰당국으로서는 아직 연구의 여지가 잇다하여 그대로 보류하고잇다

播種期를압두고 小作爭議漸次增加
光州法院管內만百四十八件

[全南支社發] 전남도는 대지주와빈농이 만흔관계인지 타처에서볼수업슬만치 매년소작쟁의건수가 늘어가고잇다 작년대한재를본이래 당국의적극적인선으로 작변수기에도 융화를보이어 소작조정신청건수는 격감하엿섯는데 다시파종기(播種期)를압두고 점차소작조정신청이 증가하고잇는형편으로 군소작위원회에서 해결을짓지못하고 최후로 법의수속을밟아 광주지방법원관내인 일부[illegible]관내에서 발생하여 광주법원에 [illegible]까지 [illegible]한다

中支那旅行者
虎列剌豫防注射證明書必要

오월일일이후 상해(上海) 남경(南京)등 중지나방면에 여행하는사람은 호열자 예방주사를마친 증명서를 가지지안흐면 상륙을 허락지안는다

江陵明德青年會 二千六百年記念

[江陵] 강릉군하 각면명덕청년회에서는 금번뜻잇는 황기이천육백년을 마지하여 이의기념사업으로서 각각 조림(造林)기타 각종의 제계획을 하고잇는데 강릉에서는 다음과가티 기념하게되엇다고한다
江陵明德公會 三番地 三○○町步 ○○圓豫算 集會所設置 米十月末까지 三○ 邑有林의造林 江門津에 五個年計劃으로 每年二五○圓豫算

山火警報
咸南道管下에通牒

[咸南支社發] 산불시절을 마지하여 함남도산림과에서는 그방지에 만전을기하고잇는데 입일에는 또다시 습도(濕度)가 이십칠『퍼ー센트』나 나리게되어 전화와전보로써 도내각부군에 경계책을 통첩하엿다 그리고산림과원들은 평소근무지각중에도 긴장을 보이고잇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달 이십구일오후아홉시부터 동인에 웅림면신창리(?)동림소유림야에서불이일어나서 십오정보가 탓다고하는데 원인는제탄인부의 실화로판명되엇다

熟練工養成目標로 "産業志願兵"三千名
內地로朝鮮少年을選拔委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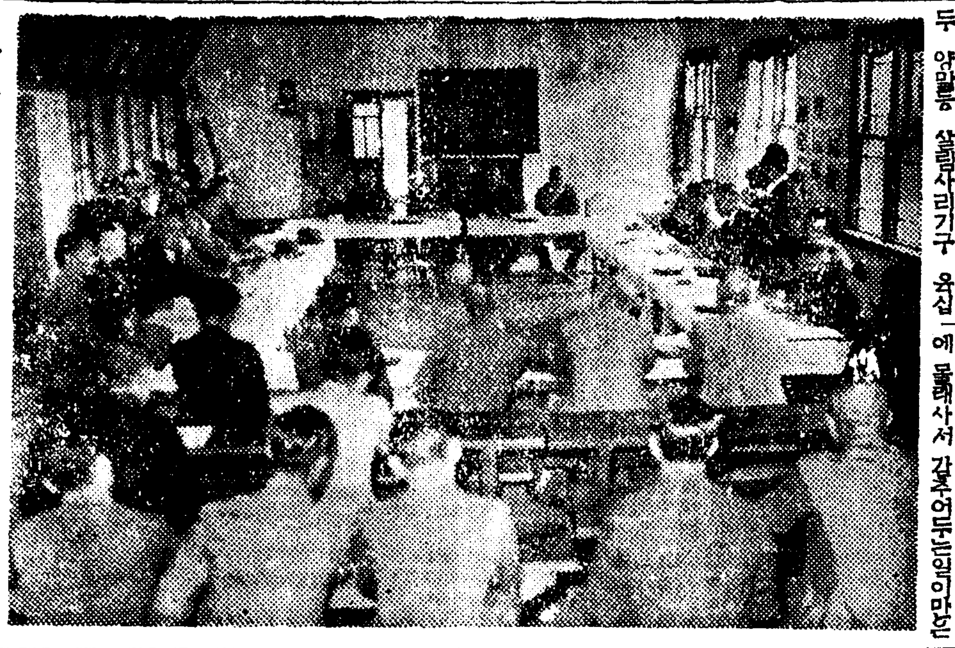
신동아건설의 대륙전진기지로서의 조선의생산력확충의 방도를다하도록 조선에서는 신년도부터 숙련직공의 내지위탁양성제도를 실시하기로된것은 조선산업의발전에 획기적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극히 주목되는바이다 종래내지에서채용한조선노동자는대부분 광산노동자와토목공사에종사하는 비숙련노동자에 한하엿고 군수품기타기술을요하는공장에서는 채용을금지하여왓섯다 그러던것을 신년도부터 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을 정부가 하리각령 사회과장(林社會課長)이 이점을 지적하여 조선인노동자가 조선안의 군수기타시국산업공장에 대량으로 종사하여 흥행한 성숙을버고잇는 조선결과 후생(厚生) 내무(內務)양성과 총독부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엇다 즉 그내용은 금번부터 해마다 삼천명의 청소년을 내지에보내어 일년동안 각공장에종사케하여 필요한기술을 배워가지고 도라오게하는것으로 총독부당국에서는 이를 『산업지원병』(産業志願兵)이라 고하는데 채용에는 각도와 소학교졸업정도의 자격을 요구하고잇는데 이의 회합에서 결정되기를기다려 오월중에 각도에서 선발하여보내게될터이다 이제도의실시는 장래의 조선산업의 발달에 새로운광명을 던지게될것이다고 자부하고잇다 그들을 보내므로 [illegible] 아 내지에 모자라는 공장노동력을 보충하게되고 조선은 기술을 획득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을 구현하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잇는터이다

購買票制配給機構
總監도實施에萬全期圖
三局長에知事、京城府尹等을招集協議
于先買藏防止의効果期待

당면한 보리고개를 돌파하는 시금석(試金石)으로 총독부농림당국에서는 경성시내의 쌕쌕한 식량수급을 완화하고저 경기도와 경성부당국과 긴밀한연락을 취하여 지혜를짜내엇고 작년보다도 오히려더만히 배급함에불구하고 쌀이모자란다는것은 일부에몰래사서 감추어두는일이만은때문이니무엇보다도 그러한매장을방지하는것이 배급통제의조호방법이라고하여 정신총동원각정련맹을동원하여 구매표(購買票)를각호에주어 지역별로 식구수에따라 매호에 적당한량의쌀을배급하다는 새방법을 취하기로결정하엿는데 대야정무총감(大野總監)도 시내의 식량사정을중요시하고 십이일오전열시총감실에서 탕촌농림국장(湯村農林局長)을 비롯하여 삼교경무(三橋警務) 대죽내무(大竹內務)양국장과 경기도지사(甘蔗知事)고 경성부윤(京城府尹)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배급방법의내용을듣고 배급에대한 관할의 사정을 청취하고 최선의 주의를하여 매장에대하여서는 극력주의시키고도새고말하엿다 배급방법실시에대한 격려한바잇섯다 이에대하여 탕촌농림국장은 오늘도지사의 보고를 듯어도 역시그동안의 배급량은 만다고하는데 모자란다는 말을듯는것은 매장때문이다 새로운 방법에의하야 매장만 철저히 방지된다면 배급은 순조로될것으로 확신하고잇다고말하엿다

糧米配給新方法
어떠케하면잘實施할까
町聯盟關係者와警察이協議

쌀을 매점(買占)하는일을 막아서 쌀을가지는사람만 가지는일을업시하기위하여서 경성에서도 일종의구매표(購買票)제도를 실시하여 어느집에서 어느날에 얼마의 쌀을사간는가를 명백히 하도록 되게된데대하여 이제도를 실시하려면 일반부민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국민정신총동원각정연맹(各町聯盟)의 구체협력이 절대로필요하므로 경성부에서는 십이일과십삼일의 이틀동안 부내각정련맹이사장을각소관경찰서에 모으게하고 정련맹의간부와 경찰당국과의 공동협의회를 열기로 되어 첫날인 십이일에는 오전열시부터 열두시까지 본정서(本町署)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 그리고 오후한시부터 세시까지는 종로서(鍾路署)와 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 양편이 공동으로 『식량조정협의회』를 열엇다 제이일인십삼일에는 오전열시부터 열두시까지 용산서(龍山署)와 영등포서(永登浦署)에서 가튼의미의 협의회가 열릴터인데 회의에는 각서수뇌부와 정련맹간부가참석하는외에 부당국측으로서도 고교(高橋)부윤과 산전(山田)총무부장을 비롯해서 배급사무에관계가기픈관리과관계자다수가각각손을나눠서참석할터이다 (사진은 종로서의 협의회광경)



第二次外米 四月中旬에移入

조선에배정된 외미의조선안착지 제일차해상송은 조선우선회사손으로 지난달중에 수송을마치엇는데 그뒤를이어 제이차로 이입되는외미(外米)의수송도 사월중순까지 조선우선회사에서 수송하리라한다

窃盜와는離婚
咸興法院에서判決

[咸興支社發] 전과잇는 남편과는 이혼하여도 조타는 리혼소송의 판결=함흥부산수정일정목 림선규(林善奎)의집 한흥봉(韓興鳳)의처 유배봉(劉培鳳)(二二)은 남편을상대로 약사개월전에 리혼소송을 하엿는데 십삼일 함흥법원에서 장곡부(長谷部)재판장으로부터 리혼하라는 판결이나럿다 그들은 소화십삼년이월이십일에 혼인하엿는데 남편은 주색에타락하여서 금전을소비하여 버린뒤에 도적질에 발을너허서 칠년오월에 일법 그후재범을하여 십일년오월에 입소하엿다고 하는데 남편으로서 동서할수업다는 것이다

本社教科書托送에 災地當局者感謝
金川知事와鄭郡守로부터

충남소선한해시 아동들이 새학년에 진급하여사용할 교과서가운데 다만몃책씩이라도 보태주기위하여 본사에서는 일찍기전조선각지 어린이들에게 읽고남는 교과서를 한해지아동들에게보내자고 제창하여 각지로부터 보내어온교과서 삼만여책을 남조선일도에 각각사천여책씩보내어 아동들에게나누어주게하엿던바각지로부터 다음과가튼 감사장을 보내어왓다

(前略) 이번에當下旱害地學童들이 新學年에서 使用할教科書購入이 困難할것을 살피어全朝鮮各地에 잇는 有志生徒들로부터 敎科書多數를 모아보내신 懇情에 對하여는 深甚한謝意를 表하는바 곳 旱災地家庭의 兒童들에게 配付하도록 하엿스므로 配付를바든 兒童이나 그들의 父兄들은 참으로 感激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後略)
昭和十五年四月十一日 忠淸南道知事 金川 聖
朝鮮日報社長 方應謨 殿

(前略) 이번旱害農漁家兒童救濟義捐으로서 헌敎科書를 보내주신 貴社의社會淨化育英에 對한深慮에 對하여는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바이옵니다 아시는바와가치 旱害直後의 端境期에 直面한 農漁家의 困難는 深刻한바잇서 자칫하면 初等敎育就學上影響이 적지안흔것으로 念慮되는이때에 貴社의 措置는 物心兩面에 有形無形으로 多大한 有益을주엇다고 생각합니다 곳各學校長에게 貴社의 厚意를 傳達하여 頒布하도록 하엿습니다(後略)
昭和十五年四月十日 保寧郡守 鄭樂勳
朝鮮日報社長 殿

奇特한學生
京城保導聯盟서表彰

십이일 경성보도련맹에서는 부내효제(孝悌)소학교안에잇는 경성공립공업전수학교이년생 산본춘웅(山本春雄)군을 표창하엿다 그는지난칠일 오후한시반쯤 부내신설정(新設町)경마장압거리에서 중풍으로 기절하여잇던 공덕정(孔德町)칠십구번지 오영환(吳榮煥)노인을 부축하여가지고 자동차로 집까지데려다주어서 일반을감격케하엿슬뿐아니라 학교에서는하학후에 운동장청소를마치고 일삼으로 이십원을 모아 국방헌금과 경강천으로 보내는등 여러가지미담의 주인공이다

主人업는집에 窃盜가侵入

빈집을 뒤저서 살림사리를 모조리훔처가지고 다라나려든 도적놈이 본정서에 붓잡히엇다 십이일아침 본정서에서는 일정한주소가업는 박금식(朴今植)(二三) 김용대(金龍大)(二○)의두명을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이자들은 십일일밤아홉시부터 십이시까지 다섯시간동안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명치정[illegible] 집에 들어가 여점을 모조리 훔처가지고 나오다가 수행중의 본정서원에게 [illegible]

交通關係者會議
事故防止策等을懇談

경기도 교통안전협회에서는 교통안전주간의 취지에따라 십일일오후여섯시부터 부민관에서 부내 자동차업자등 관계자이십여명을 초대하여교통안전 좌담회를 열엇다 이자리에서는 운전수에게 적당한 휴양을주어서 사고를 방지하는한편 장시간동안 길가에자동차를 세워두지못하게하며 『써ー비쓰』개선등에관하여 간담을하엿다

스포ー츠

京城運動場開場 主要께임과日程

京城府에서는 今春씨ー즌을압두고 朝鮮의運動競技가 날로날로 發展向上함을따라 競技를 圓滿히 하게爲하여 陸上競技場一部를 七千圓이나드리어 修繕하엿는데 四月十五日(月)에 運動場開場式을 行하게 되엇스며 四月內에 擧行되는主要한께임과日程은 다음과갓다
▲四月十五日(月) 運動場開場式(野球、庭球、陸上等)
▲四月十九日(金) 本社主催第三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四月二十日(土) 同上都市對抗蹴球大會 入幡對遞信(午後二時)
▲四月二十一日(日) 同上都市對抗蹴球大會 入幡對殖銀(午後一時) 入幡對京電(午後三時)
▲四月二十二日(月) 同上都市對抗蹴球大會
▲四月二十七日(土) 滿洲電電對京電(午後二時) 中央新聞社朝鮮文局主催 全朝鮮男女自轉車競技大會
▲四月二十八日(日) 朝鮮스포ー츠社主催 全朝鮮中央庭球大會 滿洲電電對遞信(午後一時)
▲四月二十九日(月) 朝鮮自轉車競技聯盟主催 二回全朝鮮自轉車選手權大會 滿洲電電對殖銀(午後一時)同對府廳(午後三時)

平壤體協陸上部 今年度事業決定

[平南支社發] 平壤體育協會陸上競技部에서는 今年度事業을 決定하엿다
▲五月二十五日 大同江砂上縱斷競走
▲六月九日 初等學校陸上競技大會
▲同廿二日 女子中等校陸上
▲十月廿七日 마라손大會

東都大學리ー그戰 新陣容과日程發表

東京大學野球聯盟에서는 東都大學리ー그의 新陣容과 球場日割을 다음과가치 發表하엿다 (選手名上의○印은主將 △印은新人)

◇中央【投】田中 小島 佐佐木 △石原【捕】小柳△若木【一】○奧村 熊谷【三】瀨田【遊】前島△設樂【外】宮澤 左達 赤石 高松△柴田△橫田
◇專大【投】森 戶田 多勢【捕】淵地 太田【一】稅所 武田【二】國分 富士田【三】永田【遊】藤田【外】和田 ○木村 橫田 名取 秋瑞 赤松
◇國大【投】○菅尙 國川【捕】村田【一】濱田【二】小林 中村【三】小林悅 松本【遊】田邊 田村【外】中島 牧野 寶谷 安達 伊藤
◇日大【投】都賀△龍原【捕】池田△大坪【一】吉川△荻野【二】○吳瀨△木下【三】松尾△石原【遊】松野△木村【外】前川 竹本△本多△島津 一戶△杉山
◇專修【投】文谷、梶岡、今井△小山【捕】柳坪、爲木、田村△保坂【一】馬淵、河內、菊池【二】岡池田△宮崎【三】瓜生 內田內△高橋【遊】△塚本【外】○花木、山口、飯口、金子、田中貴、山口△小野田
◇拓大【投】山本△佐伯△久野 牧野△吉田【捕】渡邊、足羅△山本【一】福井、山田【二】○菅谷、林【三】安井【遊】永田【外】佐佐木、山本時、河原

球場日割

◆四月
13日 中─農 專─商 上井草
14日 專─商 中─農 中央
20日 日─商 中─國 上井草
21日 中─國 日─商 大
27日 專─農 中─商 上井草
28日 中─商 專─農 中央
◆五月
4日 專─國 日─農 上井草
5日 日─農 專─國 大
11日 日─國 商─農 上井草
12日 商─農 日─國 上井草
18日 國─日 專─農 上井草
19日 專─農 國─日 上井草
25日 中─日 商─國 上井草
26日 商─國 中─日 上井草
◆六月
1日 中─專 上井草
2日 中─專 上井草

東亞大會組織決定

【東京電話同盟】東亞競技大會第五回準備委員會는 十日午後六時부터 東日會館에서 開催하고東亞大會委員會 規程等에 關하여協議한結果 大會開催의 具體的活動을 하게되어 準備委員會를解散하고 直時 大會組織에도러가 總裁、名譽會長、副會長下에委員會를設置하고 大會遂行의大方針을 決定하는同時에 事務局을 設置하고總務、經理、競技、公演、設備、式典、接待、情報、醫務等九部에分하여 各部長下에幹事委員若干名을置하고 大會事務를 統轄케하고 事務局陣容을 다음과가치決定하엿다
▲事務總長 末弘嚴太郞▲總務部長 松澤一鶴▲經理部長 佐佐木達雄▲競技部長 野口源三郞▲公演部長 古山利雄▲設備部長 加賀一郞▲式典部長 平山源三郞▲接待部長 淸水照雄▲情報部長 久富達夫▲醫務部長 小島三郞

今夜의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童謠劇 ▲六時三○分 講演 ▲七時三○分 時事解說 ▲八時(東)바이오린獨奏 ▲八時二五分(稍)南道歌謠 ▲八時四五分 라디오드라마 ▲九時一五分 時調와詠詩
第一放送 ▲午後 六時三五分(城)講演 ▲七時三○分(大)國民歌謠 ▲八時(城) ▲八時二五分(城)三曲合奏(平壤) ▲八時二五分 便益(平壤) ▲八時四五分(東)長唄

色鉛筆

세상은 살기 어렵다고 한탄도하나 살기어려운까닭에살맛이잇다고도 할것이다 ▲옹읍으나마나 먹지도칠지도 안흔곳에서먹을것을 걱정안코 복가음엽남양의원시생활을 어떠케 생각하면 편안하기도하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들의 손으로 어떠케살아가고 잇는가 언제나 미개인의습생에가까운 생활을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대로 계속하고잇는것이다 ▲사람의살림은 발달할수록 사회가복잡해지며 살기도어려워 가는것이니 한개인의 예절이란것으로보아도 개화한사람의 규모를치러나가려면언어동작과 의복식사등 모든범절이어지간히 힘드는것이다 그러나 이만것들은 모두사람의 도리어던 사람의 도리를 차등것만는 어데까지나 개화한 사람이 범할수업는 생활법칙이로되 ▲세상은 자기개인만위주하고 오랜세월을두고 쌓어내려온 예절조차 이즈려는경향이만타 ▲부처를 만들어노코 혼을너어야 한다지만 사람이 본래가젓던혼을어찌빠아버리랴!

東亞 開城 참기름 東亞製油所

急募 目立工 製材工 三名 五名 京義線津驛前 朝鮮製函會社 工場 電話龍山二二九一六 安養

巡査志願者 受驗生 第九期 新學期 開始 七月卅日 五月一日 講習 京城府本町二丁目 日淸生命支社

支部長採用 全南北、慶南北、咸南北、黃海、忠南各道 京城府 日淸生命支社

有望營業 經驗者求함 京城府中央電車停留場前

洋服クリーニング染色은 三洋舍로 京城府唐珠町 電光三二○六

朝報案內 百貨仕入秘訣 京城府 朝鮮百貨通信社

創氏及改名撰選大歡迎 京城府 創氏相談所

無代進呈 實物 縮寫 大特價 一圓六十錢

大景品 朝鮮日報愛讀者 記하야 『これは便利だ』 文明 大實傳 大景品

慰問手紙文集 字くづし辭典 積文堂書店

日本一完備한 便紙大寶典 組合한式과新案辭典式의長所를採擇한 新時代에適合한新講義를한無比의名著 便紙에關한것은무어던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手紙書時これは便利だ

商標 東洋製油所 고추가루都賣 全山府宝水町一丁目 製粉製油部電話二○一七番 海陸物産部電話二三三五番 振替全山四四三三番 (時價表進呈)

ドモリ 即日離語發音可能 會場 京城齒科醫專 講演と實演の會 四月廿一日午前十時開會 主催 日本吃音矯正協會 東京市神田區駿河台 日本大學內

이런幼兒에 必要한效力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大成女子商科學院 生徒募集

公認 興亞實務學院補缺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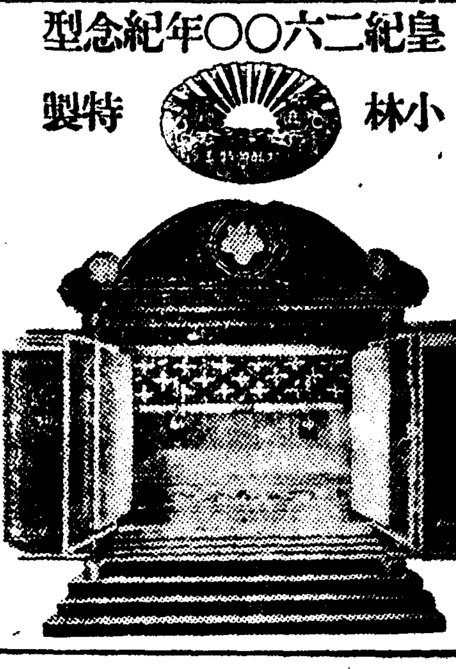
燒酒藥酒再製加入原料大推奬

慢性 急性 淋疾에 ネオヂリン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小兒肝氣散 어린이의善藥 京城府 普生藥房本舖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愛國洋服布タンス 並製定價一個六圓五十錢 特製定價一個八圓五十錢 特上製定價一個九圓五十錢 名古屋市中區老松町三丁目 伊藤利商店



皇紀二六○○年紀念型 小林特製 ◎オールスチール ◎奉安庫 ◎奉安殿入口用鐵扉 代理店 日本建材社

學藝

新小說의擡頭 (三五)
林和
續新文學史

「一朝ㅣ내가 死後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갓지못한일이잇서서 나를 죽이실터이나 그러나 그이해를알면서 말을 아니하면 여러분××가 화를면치 못할뿐아니라 ××에 큰해를 끼칠터이니 차라리 내한몸이죽을지라도 여러분××가 목전에 화를면하고 국가진보에큰 방해가업도록 충고하는말이오니다. 여러분이 나를죽일지라도내 말이나 다드르신후에 죽이시요 여러분××가 의리를 잘못잡고 생각이그릇드러서—(中略)—칙령을 거스리고 흉기(凶器)를가지고 사약으로 죽을하며 인민의재산을 강탈하다가 수비대×병 사오십명만와나면 수십명의떡이 지탕치못하고 패하여다라나거나 그러치아니하면 사망 무수하니 ××의하는일은 국민의 생명만 업세고 국가 형편상에 해만끼치는 일이라 무어슬 취하여 이런 일을 하시오」

時勢가 그러케된 根本原因을 살펴서 有效適切한 일을 圖하고 그들에게 못가를 時局을 要求하고 行하는 일이면 謀하야 올타는것이다. 그리하여 玉男은 그 根本原因으로 李朝末葉의 虐政을 들어 다음과가치 이야기한다.

『수십년내 학정(虐政)을 생각하면 이 백성의 생명이 이만치 남은거지 또하기요 이 ××가 멸망의 화를면한거시 그런 다행한 일이 업소. 우리×× 수십년내학정을 다가치 당하면 일이니 모을정리가 업스니 나는 내정에서 당하던 일을 말슴하리다.

내 선인도 재물냥이나 잇는고로 강원감영에 자피가서 볼부데로 물러서 매맛고 죽은 일도 잇고 그일로 인연하여 진안 화패가 무수하엿스니 세상에학정가치 무서운것은 업습니다. 여보 그러한실한 일이 잇소 내이야기를좀드러보시요 내가미국가서 십여년을 잇섯는데우리××사람 하나를만나서말을 하다가 그사람이막칼사지내사람이라 하는고로내가내진안에서 강원감사에게학정당하던 생각이나서 말하는이라잡하는 딴참사는 죽일놈이니 살릴놈이니 하엿더니 그사람이하는말이 그러한일은많음마오 딴참사를 공으로어더하는사람이 멧치나되오처음에할때도 돈이들거니와 내려갈때에 쓰는돈은 얼마나되는지알고 그런 소리를하오 일번에어떤 관찰이 쓰는돈이오아마나되며 그외에는 쓰는돈이 업는줄아오 그때면돈되지못하는 정부 대관 가지고 되겟소백성의 돈을아니어오면 그돈된후 무슨수로하오.

만일 딴참사로잇서서 돈한푼아니쓰고 백이려 올다가 벼탑는 누가 맛게하는 소리를듯고 내가 기가막혀서 말대답을 못하엿소.

대체 그런 사람이 벙공영사로 백성의돈을 빼스려는말이오 탐학을 예사로알고하는말이라 그러한 정치에 ××가엇지 부지하며 백성이 엇지 부지 부겟소』

여기에는 李朝末葉의 腐敗의 根源이 들어잇슬뿐만아니라 그根源의 根源이 閥平의 民되어잇다. 即 地方官吏의 民衆抑壓은 東學의 그릇된 근源의 蹶起 아니라 實로歷史에 根據하는것으로 開化된다 시위한 李朝末政治의 本質에 觸한것이다.

이 優秀的인혼돈 官僚中心의 中央集權制가 外患疲治的腐敗의 根本原因이어던것이다.

이러한 觀念을 한다우준玉男은 腐敗하元에다 큰 政治的 부치고 兵事主權을 兵事하과 部失掌에充實하고 民間을 補强지켜며 敎育을 普及시켜 民度를 向上시키자는 것이엇다.

이思想은 勿論 作者의 것일뿐외라 玉男이란 人物自身이 또한 作者의 分身인는 事實일 必要가 업다.

玉男인 말을 마치고 脇顯改元은 政事하는 意味로 人民의 生存을 主張하는 處에서는

「저놈이 섭유사의 십부름으로 내려온 놈인가 보다 저놈 자바가자」

하는 소리와 함께 義兵이달며 玉男그들을 물고 간다.

이小說이 作者의 上卷이라하엿고 玉男은未來 남아 下卷히 下卷이 發表되엇스나 上卷이 나온채 下卷은 씨워지지 아니하엿다.

分明히 玉男의意味가 義兵에게 고죽어가는데서 作者는 新小說의 形式의 限은 그때마다 發行하는 新小說의形式의「스토리」을 加味하여 讀者로하여금 다음號를 읽을 興味를 자아내게하는 伏線을 숨기고 맛만은것이다.

그러나 不拘하고 이작품의 開國이는 李末의 赤裸한 社會秩序의 實相을 反映한것으로 歷史的時代的인 價値가 잇슬뿐만아니라 ……리」卽 下卷義兵과, 義兵이라 그러하여 十時를 두고잇는사람들이다의 精神的 또는 政治的인 見解와 行動의 差異를 描寫한것으로도 不巧의價値를 가진作品이다.

文藝時評 ② 觀察과內部的圓熟
李源朝

李無影氏의『흙의奴隷』—人文評論—

作者附記에 氏의 前作『第一課第一章』과 關聯이잇는作品이라고햇스나 마침 나는『第一課第一章』을 읽지못햇슴으로 遺憾으로 생각되나 첫째 이作品에 잇서서 재미나는것은

構成

의 二重性이다 다시 말하면『흙의奴隷』는『노롱』(老農)이란長篇小說의 前作『노ー든』인듯하면서 또한 이作品은 이作品대로 獨立한 作品으로 構成하려는것이 이作品의 意圖로서 수태父子의 世代的差異 自作農沒落의過程 거기에 特히 김영감性格을 그리려고한것갓다 그러한意味에서 相當히 正確한 作家의觀察이, 이作品으로하여금 迫眞性이잇게하는데가잇다 그러나 대체 觀察이라는것이 作品에잇서서는 基礎工作程度임으로 이 作品에 잇서도 作者가 觀察하려고 애쓴데는 平面的인데가잇스면서 그러한努力이 별로 보히지안는場面에서 도리어 더眞實한 구비가잇다 가령 김녕감의 땅에대한 愛着을

叙述

하는 대목보담 수태 이 그조카가放蕩해서 敗家한것인줄로 錯覺을하고 때리다가 나종에는을이서 운다는것이 一見『센치』한듯하면서도 더한층 覇嚴的인場面이엇다

이러케말하면 이作品의中心이 김녕감性格, 그리고 그畸形한一生, 또는 土地에對한 常識以上의愛着, 이러한것을 그리려고한것인데 만약 이세가지 要素를檢討한다면 김녕감의性格을 그린것이 終始 아무런 破綻이업시 相當한程度로 浮彫的效果를나타냇스나 그畸形한一生—이것은 現代農村史라고해도 過言이아니지마는—이나 그아버지의土地에對한 愛着의心理를그리는데이르러서는 未熟한점이업지아라 가령 이作品의 主人公인수태이적어도 大學出身이고 新聞社社會部記者까지지내고 또『老農』이란 長篇小說을쓸 決心까지가젓다면 自己家産의 沒落過程, 다시말하면 現代農村에잇서 自作農의 沒落過程에대한 理解가 그러케 푸러내기 어려운 問題보담 더어려울것은 아닌것이다 이러한

運命

의 不可思議의 運命이란지 모른다 이 그아버지에게잇서서는 한개의 理論的解決을 어느公式的이나마 이러한公式으로만이마 旣願된 그아버지의勤勉, 誠實, 正直, 이러한 美德이 더한층 불상할것이 아닌가?

또한가지 그아버지의 土地에의愛着, 作者는 老農의 이러한心理를 極度로 表現해서『흙의奴隷』라고까지 불럿스나 分析 描寫가 不足한점이잇다. 가령헌수지가된 土地文書를 신주처럼 위한다든지 마지막까지 몸부림하는것이 우리에게 모를바가아니나 이作者가 김녕감의 土地愛着心을『흙의奴隷』라고까지 極言하얏以上에는 그心理의分析이나 描寫가 이程度보다는좀 더 深刻하고 細密한地境에 이르러야할것이다 가령 수태이가 논가는모양이 어색한것을 보다 못해 몸소 논에 뛰여드러 손소 논을갈며 아들에게가르키는

生新

한 描寫가 틀닌것이잇서야할것이다 또 가령 그아버지에게 양복며 오라고 勸하는 父子間의對話가 이러한意味에서 이作品이 相當히 힘드려쓰여젓고 또 그만한程度의 成果도어덧스면서도우리가 이作品에 더 바라고시픈것은 作者의農村觀察이 한거름더 도리가 그觀察된 素材가內部的圓熟에까지 이르지못한때문이아닌가한다 그러므로 수태의生活意慾도 相當히 强制하고도 한 時代的理解가잇스면서도 自己自身을 그아버지에 比하면서너무나 無價値한것으로 過度한 謙步를한것이 도리어『센티』한생각가태보이는것이다 勿論農村生活에잇서 現代的意義이라는것이 얼마나 重要한것인가는 充分히 알수잇는 일이지마는 그러타고 해서 이作品에서가지고 려케까지 重要한것은아니다 …… 이러한 自然主義의 ……이다

感情

은勿論 …… 가의 …… 的意識에서오는것은아니다 이作家에게 바라는것은 그意慾이 批判的人間에서 部的描寫에까지 이르기를바라는것이다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養鷄
押 齊韻部 (古詩體裁)
期限 四月十五日

世界의귀
◇海魚의壽命◇

獨逸어떤 一部學者들은 오태산 海漁업스록『비타민』을만히품고잇다는 說을 主唱하여 假令 열두살나는 鱈魚는 네살짜리의 十倍되는『비타민』을가지고잇다한다 그래서 어떤고기가 長壽하고 따라서『비타민』을 豐富하게 包含하고잇는가를 알기위해서 海魚의壽命調査를햇는데 그結果 淡水魚中의 長壽者는 잉어로서五十年以上산것이 그리도물지안코 뱀장어가 그다음으로서四十年이고 海魚로서는 연어가十五年가량이라한다

哀 痛 (米國彫刻展覽會出品) 레오·아미노作

土曜詩壇
病舍賦
金哲洙

구태余비우물로 반드시 消極해야 만되는 病舍를
오부시 含과만 하지안는 雅量을 가지므로 가득하다
아담과 이부가『베루발산』을 알지못햇다는 幸福觀이
決断코 나의 最後의 念願이 아님을 時마다警戒하자
患部를 表出시켜 기어코 手術을 바더야하는 責務가
오히려 人生의 眞實한生理여서 滿足의 時味일수잇고나
라끼사를 0.3그람에 便秘의 調和를 托할수 잇서
足하고
부루진液을 도리켜 感冒를 解消할수 잇스니 多幸지
안흔냐
끼마다 미음만 먹어야 되는 生活의 서글픔을 含淚
키 前에
가난한精神의 自省育成하는法을 체득해 지그지 幸福하다
光線의量결을 太陽까지 明水인양바더쓰고 업드려서
나는 이웃고 肉體의消極을 밟어올다 明朗할 잇거니
하이얀 벤드우에 謙遜한 臥身의 고즈넉한 精靈이 健
康보나 기밀고 聽覺을 思慮이니 진정 히안노하구나
寂寥가 病舍에 두너지가지 옵크리 도는 밤 子正에도
새太陽을 미더 時計와 함께 견딜수잇서 밋부다

隨筆 ❹
젊음은 이러케 간다!
李敭河

인제 바위 바위가 따가워서. 호흡한 漏液을 吸하고 끌작끌작에 철죽지없네가 붉게 타올라 엄는자수가 지러지고 그지든 자수회장속에서 三角이 호은히 醉하여 몸을어찌지못할껄도 며칠흙가리지아니하엿다. 뚝떠러저 關山에포근이 안긴 延慶寺지붕이 붉어 더 따사로워보이고 이웃 언덕에 노피 소사잇는 梨花女專 華麗지붕도 오늘은조금도 차그워보이지아니한다. 鍊金道師 大自然의 鍊金術은정말 용하긴도하당. 仁旺에서漢江에 이르는 一帶가숙한풍치을 차지하고잇는 麻浦나 이나 또는 조그만山곱작 곱작까지 도다도다 부러잇는것德里다 桃花山이나로 말하면 例事때가든면 貧病에젓고 寒疾에싸히어한貧民窟가치밧게는보이지아니할것이 오늘은破壞場아래 제법사람의 關心을끄여내나. 아니서江邊의 버들 西江邊里에구의垂楊에는어느누가 벌써水彩의 봇을드어 안개가치엷은 華綠을 한번살짝어는것이아닌가. 붓님자는아마저太陽이엿다. 어디한번그얼골을보자. 올치 그러치엇그제까지도 寒燭하든 遊學者가 오늘은 …… 豫想하고 會心의우숨을 짓고 잇는것이確實하다.

삐ー와르르 汽車하나이 한줄기煙氣를 明水瀝아레남겨노코 인제 막漢江鐵橋에 들어선다. 찌찌뿌뿌 길이뿌시바뿌다. 그러나 구버보는어던景色에마음만는 더할나우어시悠長하다. 가만이 귀를기우리면 이山의 寂寂을 깨드리는것은 汽車소리뿐이아니다. 뼝뼝. 달그렁 홍홍 뚜ー우ー아ー。거리는 圓今바야흐로 문지와黃塵사이에오늘하로의 營爲와圖謀에골몰하다. 疾走하는 自動車電車『뉴런』설매에걸고 땀에저운靑色作業服 타오르는 石炭을에 上氣한얼굴 거더부친소매회노라가는 輪轉機소리에 맘을일어들는수업서 이그러지는表情, 오르고 나리는손님에 섯가신車掌의 거츠른목소리ー거리의 影像은 매우騷亂하고 緊迫하고 殺伐하기까지하다. 瞬間 이러케 困聯를거명하니서든 나自身이 도리켜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도어느누구의遺作일까. 이모든影像에도不拘하고 푸른 안개를다고 오는 이거리의 騷音는 아무리 들으려하여도 宛然한交響樂 오는듯의 前奏曲가치바게는 들리지아니한다.

오오 그러고 저漢江, 나를 언제든지『로맨티스트』로 만들어노코야마는 漢江, 저鐵橋 미테서始作하여 밤섬에와 커지고 다시楊花渡서편 일홈모를 山사이로 살낫가치 사라지는 한줄기물은 오늘도정말 完全히 解放되엇다. 그頑强하던 어름노는보다 어데로 푸른 하늘만이 고요히담탄이 닥쳣다. 지나가는배한웅업시 물든 아직處女의 純潔을 고이진엿다. 그러나 일엇던한물을 다시차자 외롭지는 아니하다. 그러고 때때로 반짝반짝 떼아닌 별을뿌리며 지나가는찬거운바람에 어제붙記憶이 괴롭우나 微笑하는太陽을 우러러보고는 다시安心하고 瞬間 인제부터 다천魔藝와 遊樂파 喧騷를그려본다. 가마니꺼꾸리 다러다보는 가상의버들 밤섬 楊花渡도 오래간만에 凝걱하는 낫던는벌을 지나간님의 거즈른바람파 매운눈보라를 이야기하고 來日의기렴을 노래를 다시 約束할수잇는것이다 바갑다.

부르릉 아。! 漢江은 깜짝 놀란다。그러다 이것도 생각하니 낫선소리는 아니다。바루 연飛行場의 飛行機의爆音가. 브르릉 땅을 박차고 한늘을 向하여 날개를 펴는것이다。飛行機는 銀빗날개에 벼츨 바드며 한두번끼우적 끼우적 漢江우를 한번맴돌고는 한번다시 곱을 노파。소사 멀리 南쪽하늘을向하고 날려간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도ー레야도! 도ー레야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일홈할수 노래ー노래가 아니라 일홈할수업는 高喊을질르다。高喊은 나스사로가 놀랄게 엄청나게 놉고떨린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도ー레야도! 도ー레야도!
도ー레야도!

오오 그대여 照覽하라! 내나의 義務를 다하노니 完全한 化學者와도가치 精確한 觀察者와도가치 거또는

오오 世界여! 歲月이여! 人生이여! 너의 마지막 사다리에 올라서 지나온길을 구버보고 떠노니

너의 꼿다운 靑春 언제 또 다시올까나! 영영 다시아니오리라 오오 영영 다시는!

그러면 이것은 또무슨 눈물인고! 하늘을 우러러보고잇는 내눈에는또다시 눈물이 핑돈다. 『오ー오ー』를 連發하는 聲帶의振動과 淚腺에 어떤生理的 有機關聯이잇는것일까. 또는 내아지못하는동안에 『퍼몰데른』의구버진 韻律에 칼을려 『퍼몰데른』의沈痛한 愛戀에 사로자핀것일까. 또그러치 아니하면내 사랑하는『쉘리』와 한가지로나지나 밤이나영 다시차즐수업는 기쁨을 서러하는것일까.

내高喊소리는 비록 노프나 事實 내가슴속에 한줄기 哀愁가 업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이것을『퍼몰데른』의 深刻하고 沈痛한 愛戀에 비긴다면 그것은 確實히 내感情을 歪曲하는것이다. 哀愁라면 그것은도리어

봄이 오니 다시 죽고지퍼 지지도 아니하고ー

하는『클레멘』의 가벼운哀愁 어느程度의甘味조차 집어널수잇는 哀愁다。

參加規定

資格 朝鮮內各都市의學校教會其他의合唱團全部로하되同一人으로써한團體以上의出演을不許함

參加料 參加料는無함

申請 參加團體는參加申請用紙에部門別及男女別人員數等을記入하고團體의寫眞(가비네版)을添付하여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朝鮮日報社事業部合唱콩쿠ー르係에提出할것

申請期限 昭和十五年五月十日까지

指定曲目
가、混聲合唱 神을讚頌하라 스카랏티作 (春秋社版世界音樂全集八卷所載)
나、男聲合唱 船路 멘델손作 (春秋社版世界音樂全集八卷所載)
다、女聲合唱 流浪民 슈ー만作 (女學校用·女聲之部合唱曲)
以上指定曲外에自由曲各一曲計二曲으로함

時日 來六月上旬
場所 府民館

審査規定
審査規定 審査方法
가、混聲合唱 나、男聲合唱 다、女聲合唱
參加團體는各部門別로審査委員立會下에抽籤으로順番을定하여前記時期、場所까지公開決選을行함

表彰
受賞團體發表 受賞團體發表는決選終了後朝鮮日報紙上에發表함
混聲、男聲、女聲의三部門의各第一位의優勝及三部門을通하여總成績第一位의優勝에는優勝盃及副賞五十圓式 優勝賞에는優勝旗及副賞으로自由圖書를贈與함

審=査=委=員

朴慶浩 洪蘭坡 桂貞植 金世炯 金載勳 朴泰俊

主催 朝鮮日報社

북·레뷰ー
鄭光鉉著『姓氏論考』(上)
金準杓

지난二月十一日부터 施行된 改正朝鮮民事令은 여러가지方面에서보아 劃期的法令이며 朝鮮사람으로서는 法律家이고아님을 不拘하고 누구든지 알어두어야할 重大한 法令이라하겟다。이法令이 施行되지既爲二個月이며 氏設定의 막음이 不過數個月後인 八月十日로迫頭하여 잇는데 아즉까지이法令에 對한世間의 理解가不足한것가치 보임은 遺憾스러운일이라하겟다。法令은 이미施行이되고잇스니 朝鮮사람으로서는 누구던지 이法令은 各自에게 關係업는것이라고하지못할것이며 누구나 알어두고硏究해 두어야할것이다。

이때를當하여 鄭光鉉氏著『姓氏論考』가世上에나타나게된것은 大端히意義잇는일이며 世上에 퍼졋는바 만흔줄로생각하는바이다。

鄭光鉉氏는 十有餘年前에東京帝大法學部를마치고 그후多年間某專門學校에서 敎鞭을잡으며 親族相續法을專攻한篤學者이니 이冊의著者로서 題目만보나하지라도 누구나 이冊의價値를 推測하여알것이겟지만 한번그內容을 읽어보면 著者가 얼마나 이冊에 努力을 가하며 또 이冊을 엇는가를알수가잇다。

改正民事令에關하여는 只今까지 大小著書와論文이 數만히世上에나타낫스나 이冊과가치 詳細하게 또法理的으로써잇스며 이冊과가치 參考文獻으로 無慮數十種을 引用하여 그에對한 著者의 意見을 記敍하는同時에 이冊한卷만 읽으면 姓氏論의 重要部分을 읽은것과가튼 効果를나타나게하는 양전하고 피잇게쓴 冊은그例를보지못하는바이다。그러나 이冊은 決코 法律學徒를爲하여 法理的으로만쓴것이아니고 오히려 一般社會를爲하여 親切을다하여 詳細히쓴것이며 一般이誤解하기쉬운點을들어서 一一히 解答한것이라고볼수잇다。

二

只今一一히 그內容을紹介할수는업스나 그一、二의例를들자면 世間에 從來우리의姓은 우리祖先이數千年前부터 使用해온것인데 只今姓을 世上通用의名稱으로쓰지안코 氏를設定하여이것을 使用하는것은 祖先에對하여 죄송하다는일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 만히잇는데 이點에對해서 著者는 故今西龍博士著『新羅古史의硏究』를引用하여『(上略)新羅王朝時代가되어 漢文化의 影響을 受하여 姓을附하는者 비록 比較的 만흐나 支那人의게 採하는者 或은 支那趣味를가진者가 支那를 模倣하는데 지나지안는다。王氏高麗에 至하여 政命으로써 처음 人民의게 姓을 附與한것갓다。然이나其當初에는 그리普及되지못하엿다 高麗初期의 碑를 檢하건대 其碑陰에 題名한데 名만을 書하고 姓은 記치안는것이잇다 그러나 얼마後에는 一般으로 行하게된것갓다』라고하여 世上의 誤解에 答하고잇다。

또 世上에는 氏의 設定을 改姓과 맛찬가지로 생각하는사람이 아즉 만히잇는대 이點에 對하여 著者는『또이미말한바와가치 當局은 氏를設定한다하고 姓을廢止하거나 姓 代身으로 氏를設定한다고는 말하지안는다 그러므로『姓』과『氏』의 關係는 마치 所有權上에 抵當權이 設定되어잇는것과 相似하다 即抵當權을 設定하엿다 하더라도 所有權自體는 如前히 남아잇는것과가티『氏』가새로『家』에設定되더라도 在來의 姓은 다음가튼 法律的效力을 如前히 가지고잇는것이다』라고말하여 姓의一義스러운 設例로써 誤解의一掃에努力하고잇다。

勿論所有權은 自己에게所屬하는것이고 抵當權은 他人에게所屬하는것이며 姓과氏는모다自己에게 所屬하는것이니이 點으로보면 兩者가달은것이나 姓을廢止하는것이안니요 姓은그대로가지고 그우에氏를設定하여 두가지를 다가지게된다는 點에잇서서 所有權우에 抵當權을設定하는것과 同一하지는안지만 相似하다고하겟스며 이러한意味에잇서서 著者의設例는適當하다고하겟다。

三

또新聞紙上에間或 우리門中에서는 宗會를열어 이러케氏를 設定하기로 決議하엿스니 宗會에參加하지안흔 宗中員도 모두 同一한氏를 屆出케하시오라고 廣告하는 일이잇는데 이點에對해서도 著者는『宗會乃至門會에서 決定한氏는 會員이조차아닐 宗約上義務도 업다고보며 各自가 任意로 다른氏를 選定屆出해도 無妨하다 換言하면 宗會乃至門會에서 決定한氏를 宗員에게 强制할수는업는바이다 그러나 宗中에依하여 團體的으로 氏를 協定하는것은 內地人式氏를 多數으로 生産시키는 一方法이라고볼수잇다』라고말하여 이點에對한 誤解업기를期하고잇다。

以上말고外에『支那의姓氏의起源』『朝鮮人現在의姓의種別』『朝鮮姓에 어떠한字를加하면 現在 內地人의 氏가되는가』等의 各項目은 매우興味스러운 說話이며 卷末에附錄으로도 最新朝鮮家族法關係重要法令集을 添加한것은 錦上添花之格이라 하겟고 特히『改正朝鮮民事令』을 爲始하여 各法令을 改正法令에 依하여 整理한것은 이러한 整理된法令集이 아직 世間에 나타나지 안흔今日에 잇서서 在朝在野의 法曹는 勿論이요 司法書士 府邑面職員其他 一般人士에게 大端히 便利한것이라고하겟다。(게속)

◇쥐의損害◇

米國化學協會의 報告에依하면 米國全土內의 쥐의數는 人口의約二倍로서 쥐한마리는一年에적어도 二弗의 損害를끼치니까 損害總計는五〇〇、〇〇〇、〇〇〇弗以上이라고한다

新刊紹介

◆時光◆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酒泉里町一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五錢

◆科學朝鮮◆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公平町一一九 科學知識普及會 振替京城三〇三一〇番 定價二十錢

◆調查月報◆ 三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급·만성림질과化膿性諸疾患의
原則的化學療法劑

Z-K-74

만천하에부드러운화가를주는 반가운福音이 또다시들어왓읍니다만 방고로신음하고계시는분께서는 더욱중세가악화되기쉬운시기인만큼 위세상만물이 춘기를맞이하여 喜々樂々으로지내는이시기에있어서 그와는반대로 一層더悲哀를늣기실것입니다

그러나이제로부터는 아모리중악한림질과모든化膿性疾患으로 걱정이없게되었음니다 즉그것은 매독에대한「사루바루산」發見以來 化學療法에一大革新을일으킨「술화민」의發見으로써 그성능에대해서는 임이厚生省社會局衛生課에서 림질의原則的療法으로써「술화민」의採用을指定하고잇는것을보드래도 잘알수가있읍니다

「자오긴」은 이「술화민」으로써製劑한純正優秀한國産製劑임으로 化學療法에있어서의有効根基를 가장高率로含有하고있음으로 그효과는極히迅速하여 短期에만족한成果를얻을수있읍니다 더구나洗滌 注射등을않고 간단히內服만으로써 치료의目的을達할수있을뿐만아니라 체내에있어서는生體臟器 健康細胞. 血液成分에대하여서 아모부작용도없으며 또한그의응용범위는廣汎하여 다만림질에對해서만卓効가있을뿐만아니라 連鎖狀球菌葡萄狀球菌에依한化膿性諸疾患에도현효가있으니「술화민」의發見이야말로「사루바루산」以上의化學療法의發見으로써 세평이자々한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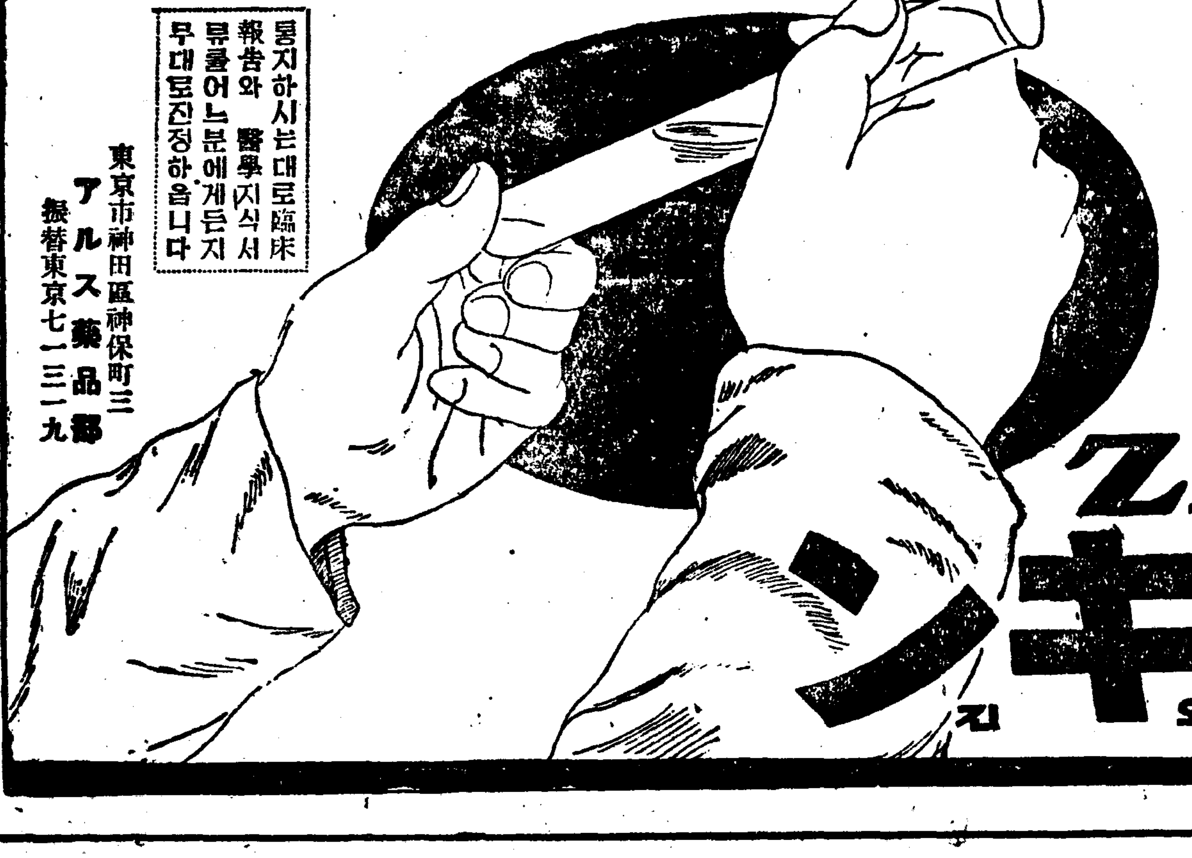
급만성림질·림독성섭호선염·부고환염·腎盂炎·膀胱炎·림독성부인병·대하증·편도선염·中耳炎·化膿性淋巴腺炎·面皰·盲腸炎·敗血症·丹毒·림독성관절염·노도염·一般化膿性諸疾患等에특효합니다

가약
五〇錠……一圓五十錢
一〇〇錠……二圓八十錢
二五〇錠……四圓八十錢

全道有名한藥房에있읍니다만 매절된때는 직접본포나혹은京城新井藥房에주문해주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합니다

통지하시는대로臨床報告와 醫學지식서류를어느분에게든지 무대로진정하옵니다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三
アルス藥品部
振替東京七一三一九



ZAOKIN
ザオキン
자오진

農業發展에 對應 "農村林業"을 試驗

林業試驗場 ②……A記者

【農村林業】에 關한 試驗은 昭和十三年度부터 實施하기 시작하여왓는데 家畜飼料, 自給肥料, 林産燃料, 速成燃料, 害蟲驅除, 水害防止, 家畜의 林野放牧, 林內耕作農牧地防風林等 凡百의 農業上必要한 林野의 利用과 取扱方法을 光陵에 잇는 試驗林에서 實施하고 잇는것이다.

試驗內容을 簡單히 보면

1, 自給林産肥料에 關한것 樹木의 嫩葉, 落葉과 林野草類의 肥料價値를 明瞭하게 하기 爲하여 아까시야의 嫩葉과 기름새等 綠肥로 水稻에 施肥하고 상수리나무의 落葉을 牛舍에 敷藁로 使用한後 堆肥로 使用하여 肥効價値를 試驗하고 잇는것이다.

2, 自給林産飼料 이것는 林産飼料과 野草類를 家畜飼料로 使用할때에 어떠한 價値가 잇는가를 試驗하는 것이다. 이것도 前項肥料試驗에 供試한것과 가치 아까시야와 기름새를 生葉으로 試驗하고 或은 엔시레이지로도 만들어서 緬羊六頭에 試食을 시키고잇는데 그成績은 相當히 良好하며 試驗하고잇다.

3, 原野放牧에 關한 試驗 山도아니오 田畓도아닌 草生地를 農村에서는 어떠케利用해야할것인가는 가장緊近하고도 重要한問題이다. 이것이여서 平地의 原野 採草地의 增産取扱法을 硏究하는것이니 大陌을 試驗地로 選定하고 施肥, 燒却 刈取法과 優良牧草의 成長에關한 試驗等을 하는것이다.

새삼스러히 말할것도업지 村의 草生地는 누구의 가르킴이 업서도 利用할때로 利用하여왓다. 그러나 똑가튼 利用에 잇서서도 有利하고合理的인것이 試驗場에서는 理的인것이 試驗場에서는 한다하지 안코 4, 採肥林施業法試驗과 5, 林地落葉採取의 試驗이 잇는데 이것들도 肥料로또는飼料로서의 林産物의 價値를 明確하게하자는것이다. 一般農産의 增産에 增産을거듭하고잇다. 이것은 人 記者—

……不可不 肥料資金의 缺乏이 다. 이缺乏의 無理를 解消시키라면 自給肥料의 價値를 金肥의 需要增加를 招致하게되나 언제든지 금 쪼까리로남 方向이 엇잘것은 定한理致다. 그러나 朝鮮의農村을도라다볼때에 自給肥料의 有無는 그곳의 山色이 푸르고 안푸르데 正比例한다 고도 할수잇다. 이試驗의完成은 農家의 압마당을 山間까지 延長시킨것이라고도 할수있다.

6, 緬羊의 林野放牧 緬羊는 牛馬에서 니 기르고 내기나 논두렁에 풀이나 뜨더먹게하는것이 이땅의 農村에 주로 잇는 飼養方法이다. 이외가튼 從來의方法을 改良하기爲하여 廣葉樹林地二町을 試驗地로하고 放牧程度를 强度, 弱度, 中程度, 無度의 四區로나누어서 六月부터 十月까지사이에 緬羊二頭式을 放牧하여 牧草地 林況의推移을 調査하는것이다.

7, 緬羊의林野放牧 이것도 前者의 緬羊과 마찬가지로 家畜를 放牧하는때의 牧羊에 對한 影響과 造林木의 抵抗性을 明瞭하게하자고하는것이며 四年生朝鮮松의 造林地約五十町을 利用하여 緬羊三頭를 羔育하는것이다.

8, 階段耕作試驗 山腹斜面의 表土의 流失을 防止하고 農作의 保續的生産을 期하려고 斜面에 階段을 만들고 集約區와 粗放區를 設備하여 大麥, 小麥, 粟, 大豆, 豌豆를 試作하고잇다 內地의 傾斜地 急斜面이나 長野縣은 傾斜地의 農業으로 有名한곳이다. 바 그대로 山을벗고 農家에서 ... 에는 國家에 肥料로서 ... 까지 나가려면 山에 ... 늘리가다. 이試驗이 完成된 는 山林과 山村農家에 ... 因이 된 경우에 抗 ... 조치 그 對抗 ... 지로 ... 山村農業의 ... 提共을 ... 山村農業의 ... 9, 林間耕作試驗 ... 林間에 ... 의 被壓가 可能한가 어떤가를 ... 試驗하는것이여서 ... 面積을 二〇%와 三〇%로 나누어서 大豆, 麥, 大麥, 小麥, 甘藷를 試作하는 ... 고잇다. ... 成木의 生長調査(上)와 苗木의 成育試驗(下)

今日財界 十二日

◆大豆(京城. 前二時) 〔正租〕 ... 玄米 ... 七分搗白米 ...

大麥	一六〇斤
裸麥	二三〇斤
粟	二四〇斤
大豆	滿山三等

◆棉 ◆蠶 (先限前位十錢)

朝鮮의 資金調整 第一四半期實績

認、許可84件、一億一千萬圓

工業이 四割三分九厘

財務局發表 朝鮮에잇서서의 臨時資金調整法의 昭和十五年第一四半期(一月부터三月까지)의 施行狀況을보면 總取扱件數는 百二十八件으로 其內容은 許可, 認可된것八十四件, 不認可, 不許可로된것十八件이다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總件數에잇서서 十八件不認可不許可件數에 잇서서 十八件의 增加로되어잇다 그리고 認可許可를 한 事業의 事業設備資金總額은 一億一千五十萬으로 前年同期보다 二百三十一萬六千圓의 增加를 表示하엿다

本期中에 잇서서의 事業設備資金의 業態別內容은 工業이 四千八百五十萬一千圓(四三、九%)으로 首位를 占하고 交通業이 二千七百萬圓(二四、四%) 鑛業이 二千二十七萬九千圓(一八、四%)이 그다음이다

잇는金山을第一種으로하고 그以外의 生産을 確保할수잇는것을 第二種으로하여 瓦當 第一種은 二圓 第二種은 一圓씩 各各增金을 交付하여 이에要하는 資金은 金資金特別會計에서 支出하게 되엇스므로 이로써 産金增産은 相當히 拍車를 加할것으로 施信한다 日本産金振興會社는 第二次計劃을 終了하엿스므로 非常히 好成績을 내여 이미 政府補給金도 必要치안흘程度로 餘裕가생겻다

施行以來의 總額 十三億七千萬圓

工業이 八億三千九百萬圓!

臨時資金調整法施行된 十二年十月十五日부터 今年三月까지의 總取扱件數는 八百三十八件으로 認可, 許可件數는 八百八件이오 事業設備資金의 總額은 十三億七千七百二萬六千圓으로서 業態別로보면 工業이 六一%가 斷然首位로 八億三千九百三十五萬七千圓에 達하고 鑛業一七%(二億三千六百九十四萬六千圓) 交通業一四%五(一億九千九百六十二萬圓)의 順位인바 그詳細는 如左하다

事業設備資金額

業態別	本期分 金額	百分比	施行以來累計 金額	百分比
鑛業	二〇、三七九	一八、四	二三六、九四六	一七、二
工業	四八、五〇一	四三、九	八三九、三五七	六一、〇
農林業	四、九二七	四、三	一六、三〇二	一、二
水産業	一九三	〇、二	三、四九六	〇、三
交通業	二七、〇〇〇	二四、四	一九九、六二〇	一四、五
商業	一、〇八三	一、〇	一一、〇〇九	〇、八
鑛業	三〇三	〇、三	一四、一九八	一、〇
其他事業及施設	八、一〇八	七、三	五六、〇九八	四、〇
計	一一〇、五〇〇	一〇〇	一、三七七、〇二六	一〇〇

取扱件數

事項別	本期分(自一月至三月) 總取扱件數	認可許可件數	施行以來累計 總取扱件數	認可許可件數
事業設備	哭	元	四二	三六
株式拂金	三	三	二二	一九
資本增加	一七	三	三五	三
會社設立	三〇	二二	二五	三〇
會社合併	七	二	六	二
目的變更	二	二	三〇	二〇
條件變更	三	三	三〇	三〇
計	一二	八四	八三	八〇六

産金資材承認 增産에 拍車

木野産金課長歸任 談

【釜山電話同盟】總督府産金課長木野藤雄氏는 議會案務, 産金割增金, 資材問題等으로 四十五日間 渡東中이던바 十二日朝 釜山上陸아까쓰끼로 京城에 歸任한바 如左히말한다

本年度 産金關係豫算 從業通路開設費等도 包含하여 六千萬[圓]에 達한다 이에要하는 資材는 事業計畫의 決定이 今月末頃으로되므로 明白치안흐나 産金事業의 重要性에 鑑하여 大略要求

"釜山港"團際港化

主要外國航路寄港

朝鮮産品第三國進出을 期待

孟買線不定期入港

大阪商船에서는 孟買航路의釜山寄港을 定期化하고자 調査硏究中이던바 그第一步로서 五月二十九日 同航路의 倫敦丸(七、一九一噸)을 不定期로 釜山에初寄港케하기로되어 그成績結果에 依하여 同航路의 釜山寄港을定期化할計畫이다 同船은 釜山에서 香港, 新嘉坡, 페낭, 콜롬보 孟買, 카라치에 寄港, 印度方面으로 朝鮮産硬質陶器, 琺瑯鐵器, 水産製品, 籠球等의 輸出이 好望되고잇다 그리고孟買航路가 定期化되면 商船의 카랏치線, 紐育, 比律賓, 南洋海運의 자바線郵船의 濠洲線의 各寄港으로 國際港으로서의 釜山港의 重要性이 다시 加重케되고 朝鮮産 物資의 第三國貿易振興에 크게活躍할것을 期待된다

比律賓航路初寄港

大阪商船의 比律賓航路東西番丸(五, 七八五噸)은 九日釜山에 初寄港 同日午後五時 出帆하엿는데 積荷로硬質陶器 六十五噸 木材七百噸等이엇다

昭和製鋼一億圓增資

【東京電話同盟】昭和製鋼所에서는 昨年에 이어서 今年부터 鐵鋼第五次增産計畫으로서 本格的建設에 着手되어 그所要資金을 調達코자 現在資本金二億圓(全額拂込濟)을 一億圓增資하여 三億圓으로 하기로되어 來月末에 開催할 定時株主總會에 右增資案을 附議決定한다

黃海經濟聯盟 第二回理事會

日滿實業協會에 繼續에依하면 黃海經濟聯盟에서는 來五月十八日午前九時부터 阪神의甲子園호텔에서 第二回理事會를열고 左記件을附議한다

一、昭和十四年度事業報告
一、昭和十四年度收支決算案
一、昭和十五年度收支豫算案
一、第二回總會開催의件

君島鮮銀副總裁 滿洲北支視察

十日에入京한 君島鮮銀副總裁는 平尾秘書課長帶同 十四日午後四時三十分發 奉天經由北支에 直行, 天津, 北京, 保定, 石家莊, 楡次, 太原, 濟南, 靑島等視察한後 大連에갓다가 鞍山, 奉天, 新京, 哈爾濱, 吉林等視察하고 五月十四日 新京發, 同十七日午後二時二十分 再入京할豫定이다

北支開發調査局新設

【東京電話同盟】北支開發會社에서는 今回政府補給金百九十萬圓으로써 北支의産業과 經濟資源의 基礎的調査를進키로되어 同社調査機構의擴充을 立案中이던바 外局으로서새로이 調査局을

滿洲國政府 日貨公債

一億圓發行

【新京十一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國資金을調達키爲하여 日貨公債一億圓을 發行키로되어 發行通則을制定하고 十二日經濟部令 第十三號로써 公布키로되엇는데 그要旨는 如左하다

一、政府는都市事業公債法에依하여 日貨公債一億圓을 數回에 亘하여 發行하고 또公債前借金을함

一、本公債는 專賣益金으로써擔保로함

滿洲國債五千萬圓

【東京電話同盟】滿洲國 第四次第一回投資事業 公債五千萬圓新規發行에關하여 滿洲國 신디게이트團 十三行 四信託 代表者는 興銀에 參集하여 그條件等에對하여 協議한結果 十一日旣發債과 日本國債와 同樣의 特典을 受하고잇스므로 高價發賣·呼하고잇는 現狀에鑑하여 前回(昨年十二月)에 比하여 期限을 一個年延長하고 利率年四步 發行價格 九十九圓七十五錢 期限十五年의條件으로써 引受키로되엇다 그러나 正式通達케되엇는데 右新規公債는 滿洲國政府의 滿洲國債, 韓 ……는것도 同時內定하엿다

運賃傭船料答申

海運業組合委員會開催

朝鮮海運業組合에서는 昨年末 第一回委員會에 뒤이어 來十七日午前十時부터 朝郵會議室에서 第二回委員會를 열고 總督府의諮問인 價格等 統制令에 依한 組合의運賃, 傭船料의 基準額申請에 對하여 協議할터인데 右委員會에 잇서서 基礎案을 作成하고 다시理事會의 決議를거처 總督府에 申請하기로 되엇다 그리고運賃 傭船料는內地海運業組合의 現行例이는基準으로 할터인데 特히重要物資인 石炭, 세멘트, 鹽, 肥料, 穀物의運賃을 至急決定 答申할터이다

金錢信託뽀—나스 交付키로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信託協會에서는 五年以上의 金錢信託에 對하여 臨時뽀나스交附案을 考究中이던바 大藏當局의認可를得하엿스므로 十一日 信託協會總會에앞서 理事會에서 五月一日부터 實施케되엇다

東華産業開業

東華産業株式會社에서는 鍾路二丁目長安빌에事務所를 設置하고 十二日부터營業을 開始하엿다

第二回貿易大會 六月釜山서開催

朝鮮貿易協會에서는 來六月二十日釜山에서 第二回全朝鮮貿易大會를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日全朝鮮各地의 貿易機關에各各通牒을發하여 右大會에 提出할議案을 六月上旬까지 集計하기로되엇다

兩無盡合倂認可

朝鮮中央無盡과 福德, 黃海兩無盡吸收合倂의 認可指令은 十一日附로 發令되엇는데 兩會社

延市場受米供出을 精米業者側忌避

採算不利로統制外處分

朝鮮米穀市場會社 京城延市場에잇서서의 二限受租 一萬石은 最終受方(二千數個의精米業者)에 市販米로搗精한後 京畿道配給組合에 提供하기로 되엇는데 그供出量은 現在 約五十五%로 成績이 不振하다 이것은 受方인 精米業者가 市의 道當局의指定工場外의 群山工場으로서 搗精規格에 適合치안코 能力의低率에基함으로 그裏面에는 配給組合에의 供出은 採算上不利하기때문에 어것을統制外에 有利하게 處分할것으로 散見되어 闇取引防止가 要望되고잇는때에 遺憾이라하고잇다수 回避에 對하여는 黃海道에서 市優秀米를 獲得한點에잇서서

朝運十周年記念行事

朝鮮運送에서는 四月三十日로 決定되엇다 九日役員會를 열고 協議한結果 來五月十六日 同社創立滿十周年記念行事로서 當日은 前役職員約三百五十名의 表彰을 行하는外에 物故社員의 慰靈祭도執行케되엇는데 同社가 記念事業의하나로서 編纂中인 『朝鮮運送十年史』는 近間上梓될豫定이다

朝鮮煉炭增資 生産力擴充코자

朝鮮煉炭(資本金二百萬圓全額拂込)에서는 生産力을 擴充키爲하여 全朝鮮主要都市에 煉炭工場을 增設할計劃下에 所要資金調達方法으로서 現在資本金을 五百萬圓으로增資할터라는데 目下 關係當局에 認可申請中인데 近近 許可되리라한다

東邦産金有望鑛發見

東邦産金株式會社에서는 昭和十四年 十一月以來 慶北 淡谷 都邑面 同社所有鑛山에서 探鑛中이던바 얼마前에 十萬分五라는 매우 良好한 鑛石을 發見하엿스므로 同社에서는 十日 總督府鑛山課 當局에 速許願을 提出하고 許可되는데로 直時採鑛事業에 着手하기로되어 目下 計劃中이다

貿易協會常務缺員

朝鮮貿易協會常務理事藤山正三氏는 東華産業에 轉出하엿스므로 同協會에서는 當分間常務理事

議會를通해서본 戰時財政經濟策 ⑦

傳票制是非論議

D 政府는 至今擴大傳票制度에 對하여 硏究하고잇다고 하는데 傳票制의 瞬失이던 까들린는 失敗이엇는데 어것을 日必要한것인데 무엇이 傳票制로하여 까솔린가치 되면國民生活必需品만큼 一層더큰 不便을 주게되지안흘가

B 까솔린의 傳票制는 消費不正으로선 比較的잘되지안흿는가

D 傳票制의 本旨에 相違치못하엿다 昭和十四年度까솔린券의三千枚를가저 잇는데 어것은 가장조흔 例이야

M 今般까솔린傳票를 記名式으로改正하여 그러한弊害를除去코저 硏究하고잇는모양이라지

B 傳票制度된 까솔린을 가지고 效果的으로 利用하는것은當然하지안흔가 까솔린券을團으로는 나야나 어려운事實

Y 現在의 까솔린傳票制는 그物動計劃에 基하여 이것이消費量을 決定하고 그範圍內에서까솔린을使用하여 生活하고잇는 사람들에게 配定하고 最少限의 努力으로할수잇도록 規正하여 가려는데잇는것이야 그러고그配定이그다지 不公平치안하면 事變以來日本에 하여온消費統制中에서도 第一明瞭한것으로 比較的잘되엇다 하는가

N 現在傳票制는 品物을되도록使用치못하게하는것이어 實은目的이겟지

M 그것은 反對라하지 아니지 않은가 公平히分配한다는것이 傳票制度의 趣旨이고 여것을 自由로放任하면 闇取引이생기니까

Q 傳票制度를 立案者인 商工省의 官僚의 立場에서보면 잘되엇고 國民大衆의 立場에서보

Y 이것이다 이것이하여 傳票制는 失敗라고할수업지안흔가

D 失敗라하는 것은 運用에만 缺陷이 잇는까닭이아니냐 야

D 그것은 國民이 傳票制에 對하여 訓練되지못한것을 말할것이다

Y 傳票制의 問題는 今議會에서도 重要한論議가잇섯는데 結局이러케하면 조켓다는 妙案은업는모양이지

利潤統制無熱意

B 今後의 經濟統制는 結局 本格的利潤統制까지 가지안흐면 低物價政策은 거의 實效를 못할것의 戰時經濟統制는 할수업슬것으로보이는데 大藏省에서는 大體어느程度로 利潤統制를 하면 조흘것으로생각하는가

Q 大藏省에서는 總動員法第十一條關係事項의 發動에依하여 이미 利潤統制를 하고잇다고하는데 職時統制經濟下의 利潤統制가 現在 實際的으로效果를거두고잇는냐하면 疑問이야 現行의 配當制限은 極端的인 政策으로 利潤의 企業利潤을 放任한것이다

D 政府는 至今까지 公定價格의 ……

M 至今까지는 公定價格을 決定하는境遇에 至今까지 業者가 取得하고잇던利潤을 大體 그대로 基準으로해서 認定하여온모양이지

B 適正利潤이라해도 産業의種別에따라 地域에따라 다른것이니 그算定은 非常히 困難할것이야 今般改組된 中央物價委員會에서는 昨年부터 適正利潤의算定을 硏究하고잇섯는데 事業別로算定의 基準을 決定하는것은 簡單히 되지안는 모양이지

Y 困難하다하여도 決定하지안흘수는 업는것이지

B 그러므로 中央物價委員會나 物價局에서는 低物價 完遂의 立場에서 熱心으로 利潤의引下에 努力하고잇는 모양인데 實際의것은 業者도 말하지안코 官僚도말하지안는모양이야

Y 左右間에 適正價格의 適正利潤은 一割이조코나 二割까지를 許容하느냐는것이 結論的으로 될터인데 當局도 어떠케 하려는가 생각하는지

B 그럼 至今까지 업든 業者의 決定을 …… 當然하지안는가

M 그러면 石炭業은 生産코스트의 幾割 紡績, 製鐵는幾割幾分으로 基準을明確히 決定하엿다고는 할수업지

Y 公定價格을 決定할때 者 問屋 小賣業의利潤을 어느程度로 보고잇는가

B 實은 明白한것는 몰르나 商工省의 新食物價局次長이 解析한바에依하면 製造業者에는 生産코스트의 一割五分乃至二割程度 問屋는 그仕入價格의 一割半程度를 豫定하고 그에서小賣業은 消費者에 팔때는 約二割程度의 手數料라할가利益을 大略認定하고 잇는모양이야

Q 從來해온 配當는 大藏省으로서도 大體特權과가치 認定하고잇는데 新規配當은 六分이면 六分으로 基準을 設定하엿서, 그러므로 오랜 會社의 配當은 從前대로 一割五分이나 二割이라도 配當할수 엿게되어잇지 但이것은 株價와도 關係가엇지만 (계속)

後場强調

後場은 東新七十二錢高, 鐘新不變인 低인 百四十七圓九, 鐘新不變인 百十五圓五에 寄附後 伊太利의 動員擴大를 傳하여 東新은 百四十九圓臺를 示하엿다

戰局動向注視

英獨間의 諸威爭奪戰은 去益激化되어 陸海空에亘한攻防戰이 展開되고잇는데 左右間에 歐洲大戰化는 氣分的으로 好轉되어 底意는 强堅한것이 잇서 東新는 百四十九圓臺로 諸威爭奪을 繼續한 戰局의 第二段의 轉換을 待望하며 東亞의것스나 諸躇되고잇고 亦是高價陣된 市勢는 完全히 歐洲戰局의推移如何에 달리게되엇다 한데 戰局擴大는 英佛의 極東에對한 關心을 稀薄케하여 事變處理

延取不成繼續 休商

前場休商 今朝도 賣買기업성다

後場同調 後場도 依然賣買업시 場을止하엿다

▲東京國債 ▲甲號五分一〇六、八五▲二十三年物 九八、一〇▲二十八年物 九八、三五▲米貨五分 一九八、〇〇 佛貨四分 三四八、〇〇

◇滿支株式 [illegible]

株式 戰局擴大 强調

今日의市勢 十二日

前場採合 今朝는 東新不 ……

十八圓七 鐘紡百七十七圓四 狀을 呈하다가 結局東新 百四 寄附된後 新東機府로 小淨動商 鐘新一低인 百十五圓五에 區區

◇內地株式 [illegible]

[株]……市勢는 全혀 歐亂如何에 달리게 되엇는데 第二段의 展開待로 東新은 百四十八, 九圓臺에서 揉合 ▲大體로 戰局擴大에 好惡兩面의 反應이 잇는以上 前殺戰亂當時의 經過도 보아서도 高價買는 警戒되는모양 ▲東新이 一段 更騰되어 百五十圓關門을 上拔하게되면 다시 相當한 熱狂的場面을 演出하게될듯 ▲그러나 當局의「이놈롄」抑壓이라는 鬼門도 考慮하여야할일

今日市况 ▲……目前의 擬相이 되엇는데 第二……▼商相의 속마음 으로는 『웬만한 格』으로 해보자는 모양가튼데 所謂適正價格實行처럼 하게 하나씩차자내는것보다는 도리어낫다고 볼수도잇는것 ▼中央物價委員會가아니나 物價統制大綱기는 論文은안나오겟지만 物價의生産, 配給, 消費의 適正은 去益難之難事 ▼디구나 歐洲戰爭의 ……나는것은 亦是아리송거릴것 ▼價格形成의 決定은 어떠케하는냐 其價格는 어디두 으로는 勿論이지만 轉嫁性이 問題 ▼內閣의 物價對策審議會와 物價形成委員會의 役割이 規定 注目꺼리 ▼物價統制政策이 確立한것은 世間周知의일이나 어떠케 價格을 形成하느냐는것은 今後의 하여 所謂新體制 大變革 ……

今日現株市勢 (正午) ◇朝鮮內株式 [illegible]

現物强調

現物은 株當中心으로 利喰一押後에 다시買附되어 로 自合强一 잇는데 鐘紡百十六圓六의高值를 示하엿다 此外에南洋拓殖, 石油株等이弄 議하여 注目되엇다

◇ 物價 漢藥强調 漢藥附의大中日(敵)은 三十錢高인 一圓五十錢, 一圓五十錢으로 各各強調이엇다

海苔花印暴落 光陽産新海苔花印는 品質이 漸次로 低下되어 八十束에 一圓에 四十圓값 인 百四十圓乃至 百三十圓으로 暴落이엇다

栗林産 ……

菜蔬類區區 今朝菜蔬類市勢는 干葱十二貫에 五十錢高인 一圓乃至一圓二十錢 馬鈴薯一貫은 二十錢高인 七十錢乃至五十錢 土란一貫에二十錢低인 八十錢乃至 五十五錢으로 區區商狀이엇다

海外經濟 十一日

[illegible]

證券 延米 京城府 黃金町 玉 鄭運得取引店 電話②2601番

銀行券 十一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手形交換高 ◆大阪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二分三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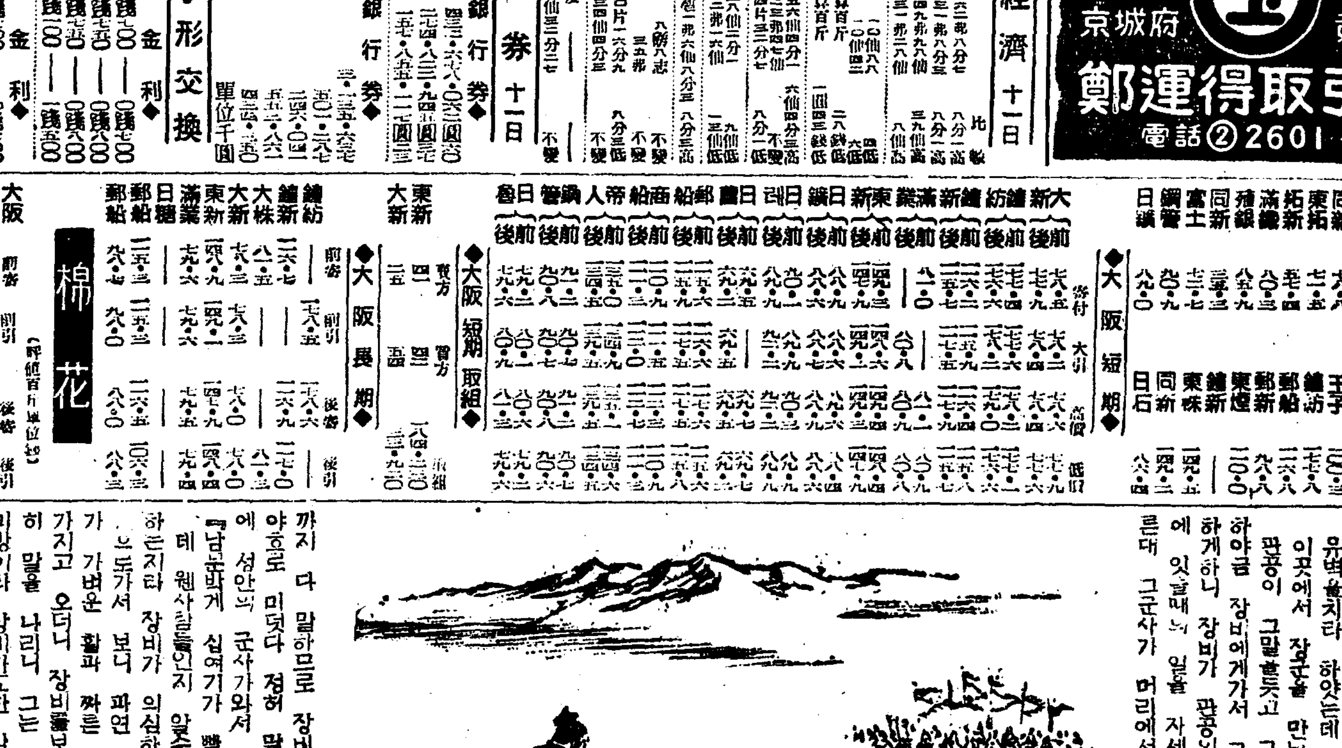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illegible]

棉花 綿布 生糸 [illegible]

◆阪神鋼粕◆ 鋼·油·粕·麥粉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三國志 (156)

韓龍雲 譯 熊超 畫



東嶺渡佐와五關斬將

가 조조의군사가 이르다 대장은 채양이라 크게 소리치며 『네가 나의생질 진기를 죽이고 도망하야 여기까지 내가 잘알러 특별히 왓노란』 관공이 대답지 아니하고 칼을 들고 싸울새 장비가 친히 북을 울처서 한차례가 다 하지못하여 관공의칼이 이러나며 채양의 머리가 땅에 떠러지니 군사들이 다라나는지라 관공이 기 수를 군사를 잡아서 온까닭을 무르니 군사가 고하되 『채양이 장군이 자기의생질을 죽엇다는 소식을 듯고 대단히 분하여겨 하북에가서 장군으로 더부러 싸우고자 하매 승상이 질겨 하지아니하고 채양으로 하여금 여남에 가서 유벽을치라 하엿는데 뜻밧게 이곳에서 장군을 만낫노라』 관공이 그말을듯고 그군사로 하야금 장비에게가서 그일을고하게하니 장비가 관공의 허도에 잇슬때의 일을 자세히 무른대 그군사가 머리에서 꼬리

까지 다 말하므로 장비가 비로소 미덧다 정히 말하는중에 성안의 군사가와서 보하되 『남문밧게 십여기가 빨리오는데 웬사람들인지 알수업다』 하는지라 장비가 의심하여 남으로가서 보니 파연 십여기가 가벼운 활과 짜른 화살을 가지고 오더니 장비를보고 급히 말을 나리니 그는 미죽과 미방이라 장비가도한 말을나려 서로볼새 미죽이 말하되 『서주에서 허터진뒤로 우리형제 두사람이 도망하여 고향에 가 잇스면서 사람을 사방에 보내어 탐지한바 운장은 조조에게 항복하고 주공은 하북에잇고 또 간옹은 하북으로 갓다하되 오즉 장군이 여기 잇는줄은 몰랏더니 어저께 길에서 어떤사람을 만나 말을 드르니 장가성가진 장군이 모양은 이러이러한데 지금 고성에 웅거한다 하기로 우리형제가 반도시 장군인줄도 헤아리고 차젓더니 다행히 서로 맛낫도다』 장비가 말하되 『운장형이 손건으로 더부러 두형수씨를 모시고 바야흐로이르러 이미 형님의 기신곳을 아랏노라』 두사람이 크게기뻐하여 가서 관공을보고 또 두부인을 보앗다 장비가 두부인과 여러 사람을 관아로 청하여 좌정한뒤에 두부인이 관공의 지낸일을 말한대 장비가 크게울며관공에게 절하니 미죽과 미방이 도또한 마음을 상하겻다 장비가 또한 치낸일을 말하고 한편으로 잔치를 베푸러서

하례하고 이튼날에 장비가 관공으로 더부러 가치 여남에가서 현덕을 보고자하니 관공이 말하되 『아우는 두형수씨를 보호하여 잠깐 이성에 머물르면 내가 장의 소식을 탐지하리라』 장비가 허락하니 관공이 손건으로 더부러 두어사람 거느리고 여남으로 갓다 유벽과 공도가 맛는지라 관공이 뭇되 『황숙이 어데 기시뇨』 유벽이 말하되 『황숙이 여기와서 수일을 유하다가 군사가 적은것을 보고 다시 하북의 원소에게로 갓노라』 관공이 근심하는빛을 띄운대 손건이 말하되 『반도시 근심할것이 아니오다 시 하북에가서 황숙을 차저보고 가치 고성으로 도라오는것이 조흐리라』 관공이 그말을 조처서 유벽과 공도를 사례하고 고성에 도라와 장비에게 그일을 말하니 장비가 가치 하북에 가고자하는지라 관공이 말하되 『이 한성을 가저는것이 우리의 몸둘곳이 되는것이라 가벼히 버릴것이 아니니 내가 손건으로 더부러 가치 원소에게가서 형님을 차저볼고 여기와서 서로 모이리니 우는 이성을 굿게 지키라』 장비가 말하되 『형님이 안량 문추를 베엇스니 어찌 갈수가 잇스리오』 관공이 말하되 『가도 무방하니 내가 거기를 가면 기틀을 보아서 변통하리라』 하고 주창을 불러서 묻되 『와우산의 배원소에게 얼마나한 인마가 잇너뇨』 『내가지금 기틀길로 조처서 형장을차저 갈터이니 네가 와우산에 가서 한 인마를 데리고 큰길로조처 오게하라』 주창이 영을 듯고 갓다. 관공이 손건으로 더부러 이십여기를 다리고 하북을 향하야 갈새 장차 계경에 이르매 손건이 말하되 『장군은 아즉 가볍게 수가 업스니 여기에서 잠깐 쉬이면 내가먼저 드러가서 황숙을 보고 별도로 상의하리다』 관공이 그말을 의지하여 먼저 손건을 보내엿다 관공이 멀리 바라보니 압마을에 한 별장이 잇는지라 종인으로 더부러 이 잇는지라 종인으로 더부러 그집에가서 쉬임새 그집에서한 늙은이가 지팽이를집고 나와서 예를 베풀거늘 관공이 실상대로 고하니 늙은이가 말하되 『나는 관정(關定)인데 성화를 드린지가 오래더니 다행히뵈옵노란』 하고 두아들로 하야금 관공 을 뵈게 하얏다 ……를 절대하야 별장에 머무게 하얏다.